

vol. 294

경기도의회

봄, 일상이 열린다

경기도서관 앞에서 피어나는 하루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
 김옥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김태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임광현 위원(국민의힘, 가평)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이재교 위원(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위원(케이미디어 대표이사)
 김부용 위원(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
 도연수 위원(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발행처

경기도의회

발행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편집인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

발간일

2026년 3월 13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과(홍보팀)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문의 전화 031-8008-7123

제작

경성문화사



시각장애인을 위해
 성우가 읽어주는
 e-book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경기도의회>를
 만나보세요.
www.ggc.go.kr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경기도의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



18



64



의정의 길

- 06 의장 개회사
- 08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 10 [특집] 예산 돌보기
- 12 본회의 일지
- 16 의정 브리핑
- 20 상임위원회 현장
- 46 5분 인사이드
- 54 도정 바로 묻기



삶의 길

- 60 경기 지하철 나들이
수원역에서 행궁동까지
- 64 휠체어로 떠나는 여행
바람과 초원 그리고 문턱 없는 길
- 68 하루를 바꾼 조례
전통의 숨결을 K-컬처와 잇다
- 70 교실에 달은 조례
학교의 경계를 넘고 세상의 문을 넓히다
- 72 의정 웹소설
사라진 정류장 멈춘 일상, 다시 이어진 길
- 76 당신을 기억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용녀 할머니
- 78 건강 100년 노트
환절기, 몸의 리듬을 맞추는 시간

- 80 천천히, 디지털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보아요
- 82 선조의 하루, 나의 하루
하루는 늘 밥에서 시작됐다
- 84 응답하라 경기
그 골목과 시장에 우리가 있었다
- 86 [웹툰] 의회툰
골목의 불이 다시 켜지다
- 88 경기 문화 한마당
- 90 2025 독자 모니터링 결과
- 94 독자 숨씨 마당
- 97 의정홍보위원회 편집 후기



의정의 영



가평 자라섬

의정의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일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로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의정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
리

임기의 끝에서 마주한 의회의 책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걸어온 4년의 시간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우리는 책임의 무게를 다시 묻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의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회기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더
욱 그렇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여정을 정
리하고 다음 의회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출발
과 정리를 함께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가 걸어온 4년의 시간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
록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
새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3년 반 동안 일하는 의회, 책
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차근차근 다져
왔습니다. 아직 완성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의회의 역할
과 권한을 스스로 세우기 위한 방향만큼은 분명히 남겨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들이 다음 의회로 이어져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거운 성찰 앞에 서 있습니다. 최
근 의회 구성원이었던 한 직원의 안타까운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남겼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
다. 이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제

도와 조직의 책임을 묻는 뼈아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혼
자 버텨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보호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필요한 기준과 장치를 분명히 세우겠
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계가 제12대 의회 출범과 동시
에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
습니다. 여러 분주한 일정이 앞설 수 있겠지만 의정의 연
속성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임기 초에 다짐했던
도민 중심의 초심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도민의 삶에
는 공백이 없습니다. 어떤 국면에서도 의정의 중심을 단
단히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도 당부드립니다.
변화의 시기일수록 도정과 교육행정은 더욱 흔들림이 없
어야 합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은 도민에 대
한 기본 책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끝까지 각자의 책
임을 다하며 도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지켜나
가야 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날까지 혼신
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민생은 두텁게
미래는 단단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회복의 흐름 속에서 민생을 더욱 두텁게 챙기겠습니다. 소비와 수출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도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민생·복지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살피고, 청년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경기도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협력의 기반 위에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용과 균형을 바탕으로 한 정책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AI 기술은 산업과 행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정책 조율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지사 직속 AI 정책수석 신설을 제안하며, 산업과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입니다. 여야와 관계 기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의원들이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끝까지 힘을 모으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협치와 책임의 의정으로 더 나은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백현종

“**재정을 바로 세워
민생과 미래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지방채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재정 운영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조정할지, 중장기 상환 계획과 성과지표를 도민께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재정비해 재정의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구조적 세제·재정 개편 논의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체 재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과 제를 차질 없이 해결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GTX 등 광역교통망 역시 사업 속도를 높여 도민 누구나 체감하는 교통권 실현 시점을 앞당겨야 합니다.

의회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민생의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은 필요한 견제는 하되, 경기도의 미래를 여는 일에는 협치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도민 곁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백현종

2026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 확정

경기도의회, 도민의 삶을 설계하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5년 12월 26일 열린 제 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예산, 민생·미래·균형발전에 집중 조정

경기도 본예산은 40조 577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조 3,356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경기아트센터 운영 115억 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68억 원 등 총 5,896억 원을 증액했고,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14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130억 원 등 총 4,370억 원을 감액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운영 10억 원 ▲광역 비축물류창고 건립 8억 3,000만 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5억 원 등 총 72억 원을 증액했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 10억 원 ▲경기도북부특수119대응단 이전 부지 매입 28억 원 등 61억 원을 감액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9억 원을 증액했고,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100억 원 등을 감액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탁금(도 일반회계 용자금) 6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도금고 예치금 266억 원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100억 원 등을 감액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학생 중심 교육에 방점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은 22조 9,25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81억 원 감액 편성됐다.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안전한 ▲학교시설 현안 수요에 290억 원 등 총 85건에 1,490억 원을 증액했고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전년 대비 43억 원 증가한 506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가한 39억 원이다.

감액 예산을 살펴보면 ▲기금 미전출금 등 재무 활동 3,092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1,326억 원 등 총 5,031억 원을 감액 편성했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 880억 원 등 총 17건 1,490억 원을 감액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7,682억 원 감소한 3,76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 대비 2,500억 원 감소한 570억 원이다.

도민의 삶과 아이들의 배움을 위한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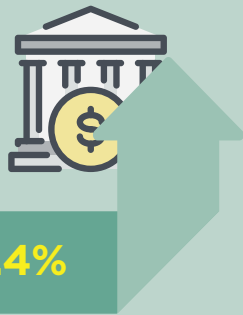
양운석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성1)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민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각종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정호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힘, 광명1)은 “미래 교육 수요, 타당성, 집행 가능성, 효율성과 형평성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의결 사항

경기도의회는 2025년 12월 26일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전년 대비 **3.4%**

- 경기아트센터 운영 115억 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68억 원 등 총 **5,896억 원 ▲증액**
-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14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130억 원 등 총 **4,370억 원 ▼감액**
-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 운영 10억 원, 광역 비축물류창고 건립 8억 3,000만 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5억 원 등 총 **72억 원 ▲증액**
-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 10억 원, 경기도북부특수119대응단 이전 부지 매입 28억 원 등 총 **61억 원 ▼감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9억 원 ▲증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도 일반회계 용자금) **600억 원 ▲증액**
-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100억 원 ▼감액**
- 지역개발기금 도금고 예치금 **266억 원 ▼감액**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22조
9,259억 원**



전년 대비 **0.6%**

- 기금 미전출금 등 재무 활동 3,092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1,326억 원 등 **5,031억 원 ▼감액**
- 학교시설 현안 수요 290억 원 등 총 85건 **1,490억 원 ▲증액**
- 계약제 교원 인건비 880억 원 등 총 17건 **1,490억 원 ▼감액**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43억 원 ▲증액**
- 남북교류협력기금 **8,000만 원 ▲증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682억 원 ▼감액**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 원 ▼감액**





“입춘의 문턱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싹트다”



입춘을 며칠 앞둔 2월 초. 아직 매서운 바람이 부는 수원 광고 일대는 겨울의 기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안은 이와 달랐다. 두툼한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은 의원들 사이로 낮은 숨소리가 번졌고, 곧 의사봉이 단단한 나무 책상을 울렸다. 마른 울림이 천장을 타고 번졌다. 새해 첫 회기의 시작이었다.

2026년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88회 임시회는 그렇게 문을 열었다. 회기 결정과 대집행부 질문, 조례안과 각종 안건 처리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일정이 촘촘히 이어졌다. 2월 3일 개회사에서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올해를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해”라고 규정했다. 출발과 정리가 함께 놓인 전환점이라는 말이 본회의장 공기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4년의 시간이 다음 의회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는 지난 여러 회기를 통과해 온 시간의 무게를 떠올리게 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를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했다. 대집행부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와 휴회 결의도 의결됐다. 의사 일정은 차분하게 흘러갔다. 2월 4일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발언대에 선 의원들은 도민의 삶과 맞닿은 문제를 꺼냈다. 일문일답 방식의 대집행부 질문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전력·용수 인프라, 교직원 근무 여건과 학교 운영 구조, 청소년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지역아동센터와 정신건강

강 문제가 이어졌다. 숫자와 통계 뒤에 가려졌던 현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으로 올라왔다. 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질문은 계속됐다. 유아교육 지원체계, 도로 개통 이후 난개발 방지, 공공주택지구 환경시설, 친환경차 정책까지 쟁점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다. 김동연 도지사 and 임태희 교육감은 답변에 나섰고, 의원들은 보충 질의로 대안을 모색했다. 2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를 위한 휴회 기간이었다. 회의장은 잠시 비었지만 각 상임위 회의실은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고 문장을 고치며 조항을 다듬는 시간이 흘렀다. 2월 12일 제4차 본회의. 방청석에는 다양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수첩에 부지런히 메모를 했고, 구리시에서 온 어린 학생은 두 손을 모은 채 의사진행을 지켜봤다. 목회자와 노동조합원, 의정도민참여단, 삼성SDS 한상엽 본부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의회는 그날 관찰의 공간이자 배움의 공간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안전·재난, 교통·복지, AI·첨단산업, 문화·환경, 보건·교육과 관련한 조례안·동의안·건의안 등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며 오랜 논의가 제도적 결실로 이어졌다. 표결 버튼을 누르는 순간마다 책임의 무게가 내려앉았다.

열흘 동안 질문과 답변은 계속됐고, 토론과 표결은 쌓여갔다. 그 중심에는 도민의 일상이 있었다. 교실의 풍경, 도로 옆 공사 현장, 지역아동센터의 오후, 산업단지의 전력 문제까지 회의장 안으로 불러 들어왔다. 산회를 알리는 마지막 의사봉 소리가 울리던 2월 12일 오후.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입춘을 지나며 누그러지는 찬 기운처럼 본회의장을 오간 질문과 답변도 현실을 녹이는 온기를 품고 있었다. 입춘을 앞두고 울렸던 첫 의사봉 소리로 시작된 제388회 임시회는 또 하나의 계절을 건넜다. 그 울림이 도민의 삶 속에서 따뜻한 정책의 씨앗으로 뿌리내릴지, 이제 답은 회의장 밖 일상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388회 제1차~제4차 본회의 2026. 2. 3.~2. 12.	조례안 45 	동의안 4 
건의안 4 	의견 청취 1 	기타 1 

원안가결 48, 수정가결 7

본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요?

본회의는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152명이 경기도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① 회의 시작

모든 의원이 자리에 앉으면,
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② 보고

지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③ 조례 상정

조례는 경기도의 법과 규칙입니다.
의원이 새 조례를 공식 상정합니다.

④ 토론

상정된 조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좋은 점과 문제점을 토론합니다.

⑤ 5분 자유발언

의원이 5분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⑥ 대집행부 질문 및 답변

의원이 질문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답변합니다.

⑦ 투표

상정된 조례나 정책의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⑧ 결정

투표 결과에 따라 조례가 통과되거나,
재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⑨ 회의 종료

모든 일정을 마치면,
의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



- **경기도청**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금철완 복지국장,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윤태완 교통국장,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 **경기도교육청** 이영창 행정국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

5분 자유발언

발언 의원
20명



(발언 순 기재)

발언 의원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허 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대집행부 질문

발언 의원
12명



(발언 순 기재)

발언 의원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재만 경기교통공사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본회의 참관



장동혁 학생(구리),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 단원고, 아바드목회 연구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동조합, 의정도민참여단(양주), 삼성SDS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예산 적정 집행 여부, 재정 운영 효율성 등 분석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월 12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 의원(국힘, 비

례),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8),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 적정 집행 여부, 재정 운영 효율성 등을 검사·분석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 투명하고 철저한 결산 검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 개최

직원 후생 복지 및 인권 보호 강화 등 담겨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이 2월 3일 도청 울곡홀에서 열렸다.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단체협약에 경기도의회가 당사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조합 활동 보장과 활성화 지원, 효율적 조직 개편 및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 교육 훈련 기회균등 및 연수 기회 확대, 직원 후생 복지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을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이 존중받고 보람 있게 일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 방안 모색 학술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발전 위한 실질적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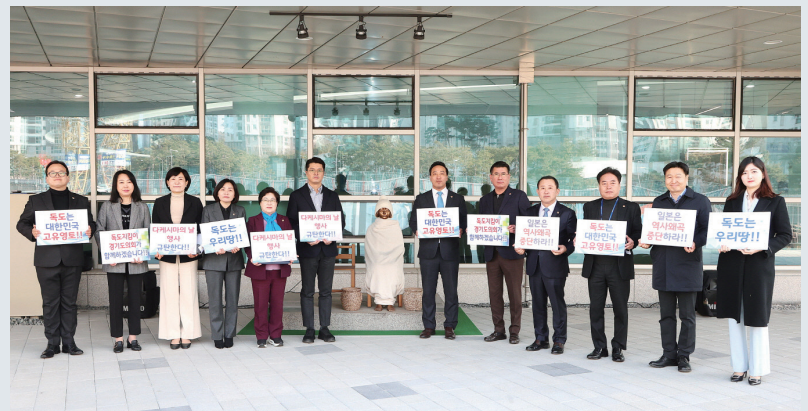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가 2월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기)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중, 구리1)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도의회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 ‘다케시마의 날’ 강행에 성명

“외교적 도발과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할 것”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는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은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 최다 수상



개인 부문 대상, 단체 부문 우수상 등 8건 수상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2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개최된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대상과 단체 부문 우수상 등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시상식에서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이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는 개인 부문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 부문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는 민생 중심 입법 활동의 성과”라며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는 민생 중심 입법 활동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심층 검증 실시... ‘적합’ 의견 청문 결과 채택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월 10일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기교통공사 박재만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합’ 의견으로 청문 결과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청문 평가 항목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박재만 후보자는 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도시환경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허원 의원(국힘, 이천2)은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동권 향상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년도 제1회 연구 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입법 역량 제고 등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월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 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심의위원회로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의원(더민주, 안산2),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과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연구 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 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

책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 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 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 지원 서비스 구축 착수보고회’

의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 위한 실행 단계 본격 돌입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 지원 서비스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



을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ISP)’에 따른 핵심 실행 사업으로, 전략 수립을 넘어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 지원 서비스는 모바일 의원 신분증, 전자인증, 의정포털 연계 접속, 증명서 발급 등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포함한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제11대 의회 마무리와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에 만전

8개 부서 대상 업무보고 중 당부
의정 지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2월 11일 의회사무처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보고에는 총무과·인사과·언론홍보과·디지털의사과·공간정보화과·법제과·예산분석과·의정지원과 등 관련 부서가 참석했으며 부서별 현안을 점검하고 실무적인 대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의장 시설 개선 ▲의정정책추진단 개편 ▲정책지원관 평가체계 개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의원 친선연맹 운영 방식 개선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2026년은 제11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12대 의회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라며 “의회사무처는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양우식 위원장(국힘, 비례)은 “제11대 운영위는 전국 최초로 도청과 도교육청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의회 혁신에 앞장섰다”라며 “12대에서는 왜곡·허위 언론보도 대응 방안, 공정한 인사평가체계 등 현실에 맞춘 개선 방안이 입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한별 부위원장(더민주, 수원4)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의회 운영의 혁신을 이루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중심의 의회로 도약하겠다”라며 “소통과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경기도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국힘, 비례)은 “도민과 함께 씬 없이 달려온 제11대 운영위에 깊은 감사로 마무리하고 싶다”라며 “그간의 지혜를 모아 제12대 운영위가 도민의 삶을 보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든든한 의회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은 “조례는 도의회와 도민과의 약속이다”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더민주, 안산2)은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의원이 되겠다”라며 “변함없이 따뜻한 도민의 관심과 격려,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언급했다.

김현석 의원(국힘, 과천)은 “제12대 의회 운영위원회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구조로 운영되길 바란다”라며 “정책 지원과 정보 기반을 탄탄히 하고 협치와 상생이 일상화된 의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은 “도의원 정수가 확대될 경우 상임위원회 증설과 의원실 확충, 기존 위원장들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이 요구된다”라며 “정책지원관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교육청과 도청 비서실 간 기본 소통체계 역시 강화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은 “도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일수록 현장 안전과 절차적 공정성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은 “제12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현장 중심 의회’가 되어야 한다”라며 “제11대 의회의 성과에 이어 실질적 민생 예산을 확보하고, 소통과 협치로 경기도의 승리를 일구며 시민께 신뢰받는 의정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다짐했다.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은 “민선 9기 도정과 의회 전략적 정책 연계를 강화해 예산과 입법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의정을 통해 정책 집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의회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은 “제12대 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석·상임위·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응답하는 소통 중심의 의회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정책 역량과 협치 수준을 높여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 의회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운영위는 기본적으로 토론하고 협치할 수 있는 곳으로 정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제12대 운영위는 열린 운영위가 되어 정책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전자영 의원(더민주, 용인4)은 “자연스럽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정치’라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큰 예산이 들어가는 ‘폼 잡는 정치’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2, 기재위 위원장)은 “제12대 의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라며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대안을 갖춘 정책 감시, 상임위 간 협력을 통한 성숙한 협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발전을 이끄는 2026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개선하는 정책 추진
예산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 높이는 데 최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경기도 전반의 기획과 재정을 총괄·감독한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2026년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민생과 복지 예산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책임 있는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소중한 세금이 복잡한 정산 절차와 수수료로 사라지고 있다”라며 “예산 규모를 키우기 전에 더 공정하게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결제와 정산의 판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더민주, 고양4)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일수록 현장 안전과 절차적 공정성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라며 “산업 현장 안

전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규모 공공사업을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감시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국힘, 양평2)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정책 효과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정호 의원(국힘, 광명1)은 “예산과 재정은 도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라며 “올해도 역할을 가리지 않고 도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절차를 바꿔야 한다”라며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기술이 행정에 접목되어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진영 의원(더민주, 화성8)은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물가상승과 고금리 상황이 겹치며 도민들은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라며 “아껴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생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필요한 곳에 과감하고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우식 의원(국힘, 비례)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며 “도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힘을 모으고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국힘, 광주3)은 “도민을 대표해 문제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에 두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은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라며 “지금 우리의 선택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재정을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성호 의원(국힘, 용인9)은 “균형발전사업은 낙후 지역의 자생력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지역 중심의 중장기 전략사업이다”라며 “중장기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그에 맞는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은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균형과 정책 효과다”라며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온도와 절실함을 행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노동위원회 공식 활동 돌입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이행 여부 집중 살펴
복합적 정책 과제에 능동적 대처 방침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는 2월 6일과 9일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상임위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살폈다. 2026년 경제노동위원회는 도 내 산업 환경 변화와 고용 구조 전환 등 복합적인 정책 과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은정 위원장(더민주, 고양10)은 “국내 외 경제의 불확실성 가운데 담당 부서와 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권익 보호, 사회적 경제 확대를 위해 애써 왔다”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가 존중받고 민생경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 대응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선영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고물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되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며 “공공기관과 주무 부서가 적극 행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국힘, 비례)은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편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지역 금융, 연구용역,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광역 차원의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더민주, 평택2)은 “전통시장 통큰세일이페이백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페이백을 해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골목상권이나 시도상권이 있다”라며 “페이백 혜택을 쓸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로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에게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 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며 “경

기도와 시군의 홍보가 소비자 인센티브에만 치중되어 가맹점주를 위한 세무 편의 안내가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신규 산단 구축 과정에서 경기도의 관여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도내 산단들이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실을 중심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선제적 준비에 나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남경순 의원(국힘, 수원1)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컨설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순 조언을 넘어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백신이 되어야 한다”라며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의 지갑을 채워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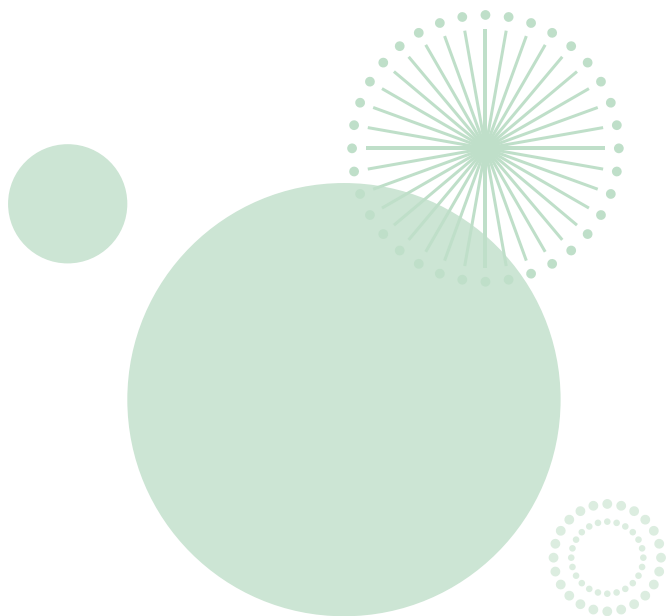
이상원 의원(국힘, 고양7)은 “중앙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를 놓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는 체험 위주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정책사업”이라며 “경기도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성과가 확인되도록 운영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가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당장은 전면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최병선 의원(국힘, 의정부3)은 “경기침체로 지역 경제와 노동 현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노동 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원찬 의원(국힘, 수원6)은 “옛 도청이 있던 효원로 1번지는 도청 이전 후 주변 상권이 붐비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수원시의 경기도가 부지 활용에 대한 전향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본격 행보 시동

주요 정책 추진 사항과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도민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당부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2월 10일과 11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2026년 주요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았다.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특히 도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주요 안전정책과 현장대응체계, 재난 대응 및 범죄 예방 대책 등을 점검했으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은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와 지원사업인데도 도민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도 후원 사항 표기 의무화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은 “다양한 현장 안전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 중심 대응이 상황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라며 “매뉴얼 준수 여부로 책임을 묻는 구조는 적극 행정을 위축시

키고, 현장 적용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경현 부위원장(더민주, 부천7)은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119 구급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규창 부의장(국힘, 여주2)은 “법을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례와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책무다”라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은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국힘, 성남7)은 “360° 스마트 영상센터에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게 된 것은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술적 지원을 이어온 결과다”라며 “중요한 것은 구축 완료가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현장 대응에 활용되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국힘, 용인8)은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각 시군별,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방식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치안 인프라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영희 의원(국힘, 용인1)은 “행사성 사업인 도담뜰 눈발 놀이터 조성사업 예산을 감액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의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무시한 채 사업이 추진됐다면 이는 도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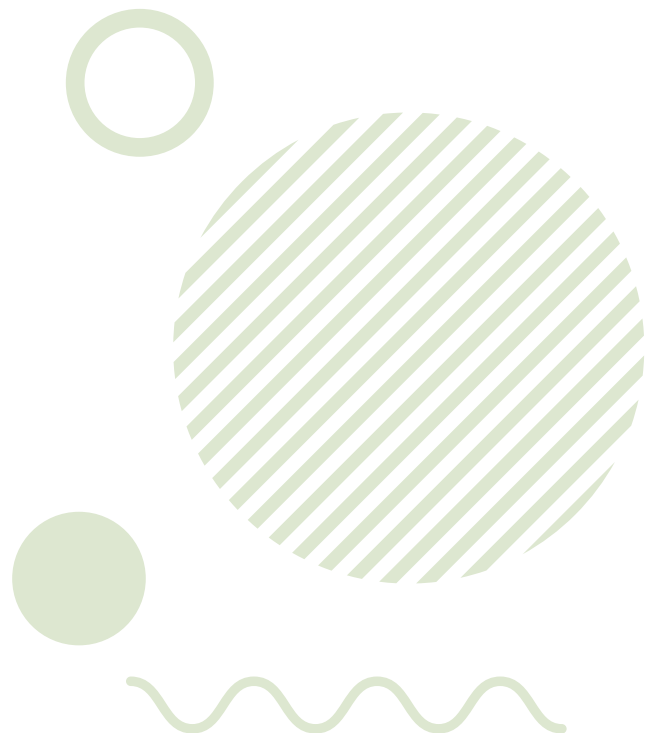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3)은 “민생 범 죄는 다기관 정보를 연계하고 범죄 구조를 분석해 기획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민생 범죄의 복합·지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은 “처음 접하는 화재 유형과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해 VR을 활용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한 후 실제 훈련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단순 장비 개선이 아니라 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는 재난 대응 시 피해자 권리와 인권을 중심에 두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다”라며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이념과 재난 약자 보호 등의 내용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더민주, 시흥2)은 “최근 재난은 여러 재난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복합 재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은미 의원(더민주, 안산8)은 “선감학원 희생자 유족 찾기 대국민 공개 신청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최대한 예우해야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2026. 2.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 중심의 정신으로 주요 현안 점검

13개 소관 부서 및 기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점검 및 조례안 6건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월 6일과 9일 제388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위원들은 13개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또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황대호 위원장(더민주, 수원3)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어도 예산 문제, 재정 악화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미진한 사업이 있다”라며 “의회가 협치를 통해 입법에 속도를 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담지 못하면 안 되니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유영두 부위원장(국힘, 광주1)은 “남한산 성역사문화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종 전문박물관과 위상에 걸맞은 독립 기관화와 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하지만 관련 기관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조미자 부위원장(더민주, 남양주3)은 “문화예술 재원이 공공 재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원 구조 마련 차원에서 ‘경기메세나협회’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더민주, 오산2)은 “연극 등 공연예술 분야에서 지원 예산이 줄어 현장에서 공연을 올리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라며 “공모사업 예산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기존 단체들이 갑작스러운 지원 축소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한국 의원(국힘, 파주4)은 “무장애 관광은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관광의 기본 기준”이라며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국힘, 김포1)은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관리의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며 “개정 조례를 통해 문화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활용을 확대해 지역 정체성 강화와 문화 자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은 “올해 본격 추진하는 경기철거패스가 단순한 예산 소진형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민의 실질적 문화 향유로 이어지기 위해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더민주, 화성7)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 숲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체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었다”라며 “도는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과 어긋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학수 의원(국힘, 평택5)은 “도자 문화의 세계화를 외쳐왔지만, 현장의 도예인들은 비엔날레가 생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다”라며 “비엔날레가 끝난 뒤 도예인들의 손에 남는 것이 전시 참여 확인서가 아니라 주문서와 수익금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국힘, 비례)은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환경은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문제를 정확히 짚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더민주, 고양3)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압표 문제는 문화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며 “법이 바뀐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기준을 세우고 창작자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석규 의원(더민주, 의정부4)은 “경기투어패스가 유명한 홍보에만 의존하는 등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가 경기도 관광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과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관광통합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조희선 의원(국힘, 비례)은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며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여 주기식 성과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국힘, 용인10)은 “예술인기회소득사업 평가가 선정자 중심일 경우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비수혜군 관련 항목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사후 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로만 처리하지 말고 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2026. 2. 11.)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해로

새해 첫 주요 부서 업무보고 시간 마련
기본소득, 갯벌 관리, 농어촌유학 등 다양한 논의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2월 10일과 11일 제38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해당 실·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성환 위원장(국힘, 성남5)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정책이면서 인구정책이고 인구 소멸 대응이라는 점에서 국가 책임이 더 큰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국·비·도비 매칭 비율이 4 대 6 구조로 유지된 것은 도와 시·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식 부위원장(더민주, 남양주5)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다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지만 도비 예산이 당초 심의 제출액보다 감소했다”라며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지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윤종영 부위원장(국힘, 연천)은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농어촌유학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아이들의 배움과 농어촌 지역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경기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바다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라며 “도민이 골고루 체험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균형 있는 해양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원(국힘, 포천2)은 “시범사업 중인 보급형 다목적 햇빛 차광막 사업은 사과 재배 시 직사광선 차단, 냉해 예방 등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경기 북부 사과 농가를 위해 경기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올리든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확대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서광범 의원(국힘, 여주1)은 “농업예산 증액을 계속 주문했는데도 매년 감액되어 보고 자료가 올라오는 걸 보면 안타깝다”라며 “특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상임위, 예결위, 예결소위까지 통과됐지만 마지막 양당 대표단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염종현 의원(더민주, 부천1)은 “최근 첨단 기술이 농업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라며 “축산 분야 역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질병 예방, 악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전환이 필수인 상황으로 축

산 분야에 특화된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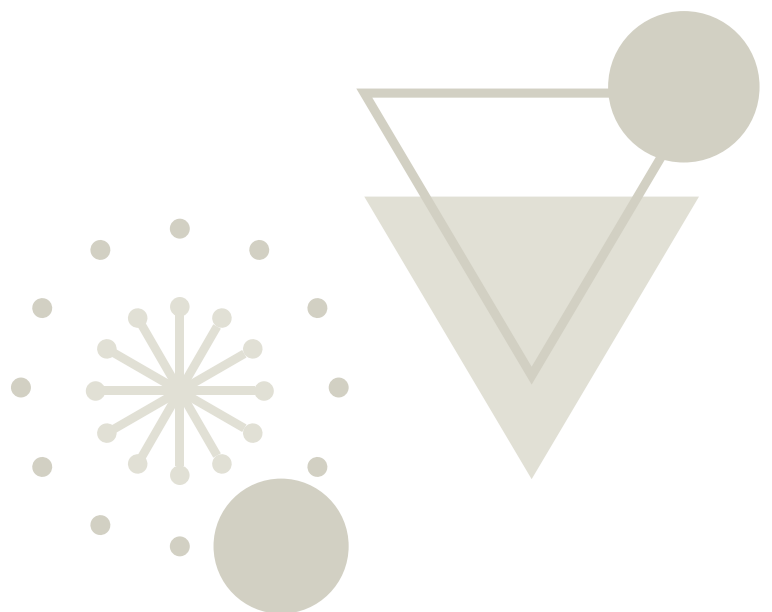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5)은 “K-푸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출 성장이 가능한 농산물이 많다”라며 “현재는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전략 품목을 개발하고 중장기 전략을 갖고 해외시장 판로를 적극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국힘, 수원9)은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50%에 이르는 점이 중소 유통업체나 참여 주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라며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신규 사업에 국비보조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어렵게 받은 국비 예산에 도비를 매칭하는 것이 예산 부족으로 힘들 경우, 본예산과 추경을 융통성 있게 바꿔서라도 국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종현 의원(더민주, 수원7)은 “도내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보다 수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깨끗한 물이 곧 품질 좋은 쌀 생산으로 이어진다.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2026. 2. 11.)

보건복지위원회

소통·협업의 신뢰받는 복지정책 다짐

소관 부서·기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심사
2026년 경기도 복지정책 여러 방면 점검 및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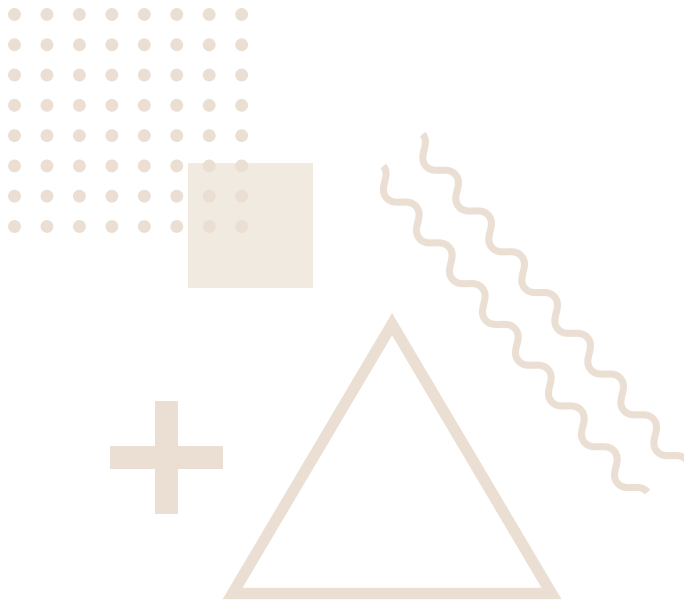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2월 9일과 11일 제38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9일에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등의 현안을 보고받고 '경기도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건의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11일에는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 청취로 의정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선구 위원장(더민주, 부천2)은 “스마트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실제 수요자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라며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보건복지위원회와 공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황세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중 간호직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에서도 간호사가 제외돼 있다”라며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간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고준호 부위원장(국힘, 파주1)은 “김동연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이 당초 출연금 30억 원 수준이던 사업 예산에 상환금 40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예산이 급격히 늘었다”라며 “이 예산이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윤태길 의원(국힘, 하남1)은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라며 “만약 민간업체가 동일한 지연을 일으켰다면 지체상금 부과와 입찰 자격 제한 등 페널티를 받았을 사안이다”라고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국힘, 용인6)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담당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교체되어 업무 파악조차 미진한 상황이다”라며 “도민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국힘, 고양12)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대상 인원은 줄어 들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지원 수준은 서울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라며 “한 번에 서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는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다”라고 당부했다.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은 “희귀질환자 공감정책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희귀질환 경기 남부권역 거점 센터인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해 정책 보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은 “푸드뱅크·마켓 종사자들은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망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행정적 누락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이행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은 “복지는 숫자와 문서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돼야 한다”라며 “조직 운영부터 예산, 정책 개념 정립, 서비스 품질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과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개선 요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국힘, 남양주7)은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시점이 두 차례나 연기되었다”라며 “현재 속도로 2028년에 착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복지국 과장급 인사가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동했다”라며 “복지는 단발성 행정이 아니라 연속성이 핵심인 분야인데 이런 인사이동은 정책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라고 지적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026. 2. 10.)

건설교통위원회

‘유종의 미’ 거두는 의정활동 다짐

2026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청취 및 안건 심사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6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388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해당 실·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월 10일에는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합’ 의견으로 청문 결과를 채택했다.

허원 위원장(국힘, 이천2)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불법 하도급과 건설기계 임차료, 임금 체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이 사전에 차단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사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계약 단계부터 점검하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병근 부위원장(국힘, 수원11)은 “요즘 처럼 통신망 장애나 다운 현상이 잦은 상황에서 교통정보센터와 같은 핵심 시설은 통신사 이중망을 갖춰야 한다”라며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함께 구축해 한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더민주, 남양주4)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건설 현장과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라며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5)은 “중대재해 발생 시 단순 산재 처리에서 벗어나 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실질적 제재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며 “2026년 업무 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부합하는 근본적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은 “대전시가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마련해 도로 개설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확보하고 있다”라며 “이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 자전거도로 설치·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도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폭 확대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국힘, 용인2)은 “용인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거점으로, 도로와 전력 같은 SOC가 제때 완성돼야 기업 투자도, 지역 성장도 가능하다”라며 “실행력과 재정 책임을 함께 갖춘 정책 추진으로 국가전략사업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명숙 의원(국힘, 양평1)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 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은 “포트홀과 노면 파손, 예산 집행 지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땀질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라며 “근본적 원인 분석 없는 점검·보수 확대만으로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서성란 의원(국힘, 의왕2)은 “기업과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과 일반 도민도 건설 기술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미래 인프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안심으로 바뀐다”라며 “건설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명규 의원(국힘, 파주5)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시범사업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시군 협의와 민간 연계, 현장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로서 가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은 “보여 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이 실제로 바뀌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도로 안전, 유지관리, 조직 운영은 각각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행정 품질로 연결돼 있다”라며 “현장의 작은 위험 신호와 내부의 구조적 한계를 함께 점검해 균형 잡힌 도로안전정책과 안정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지원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비정상적 경영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라며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기도 교통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성복임 의원(더민주, 군포4)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후 민주주의라는 표현에 맞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과 추진 현황을 성실히 보고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2026. 2. 9.)

도시환경위원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보

도시재생과 개발, 기후 위기 대응책 등 논의
소관 부서 업무보고 및 지적 사항 처리 보고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는 제 388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 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의원들은 도시주택실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민간 업무협약' 보고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했다.

김시용 위원장(국힘, 김포3)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 예산 축소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의 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예년과 동일하게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힘, 안양5)은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 교류와 상호 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 통합형 도시 공간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희 부위원장(더민주, 안산2)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보상과 이주대책, 생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도시와 구도심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주민 생활과 정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국힘, 안성2)은 “비도시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면 급증하는 개발 수요는 난개발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금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개발 수요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할 때다”라고 당부했다.

백현종 의원(국힘, 구리1)은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 규모 문제로 고양시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라며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고양시에 공식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오준환 의원(국힘, 고양9)은 “국방대 부지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총량 소진으로 경기도 물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다”라며 “경기도의 해제 물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을 갖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최승용 의원(국힘, 비례)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됐다”라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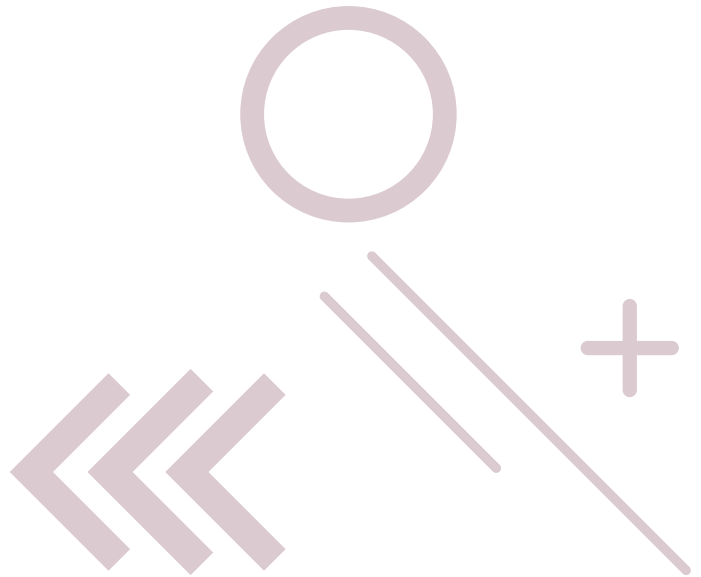
김옥순 의원(더민주, 비례)은 “최근 도민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화면과 구성이 복잡해 도민의 접근성이 낮다”라며 “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종배 의원(더민주, 시흥4)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라며 “LH는 사업 지연에 대한 해명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고려한 실질적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준공 30년이 넘는 일산 신도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라며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고양시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은 “자발적 기후 행동을 이끄는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174만 명을 돌파했다”라며 “방대한 데이터가 모인 만큼 보안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선제적 정보보호 대책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은 “광주는 성남 판교의 AI·R&D 역량과 용인의 반도체 생산 기반을 연결하는 최적의 지점이다”라며 “광주시의 입지적 강점과 규제지역의 한계를 역으로 이용한 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미래형 산업단지의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재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본격화

2026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동의안 심사
AI 사업과 관련 행정 전반 점검 및 질의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재영)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388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6일에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9일에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질의와 보고를 이어갔다. 10일에는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을 심사·의결하며, 미래산업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이재영 위원장(국힘, 성남8)은 “AI 사업과 관련해 소규모 시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정담회, 기업·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홍순 부위원장(국힘, 고양11)은 “지금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AI 캠퍼스를 권역별로 구축해 도민들이 AI 관련 교육을 가까이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전석훈 부위원장(더민주, 성남3)은 “성남 피지컬 AI 랩 현장 확인 결과, 로봇 실증이 핵심인 공간에 책상만 빼곡해 기술 테스트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간 제공에 그치지 말고, 입주 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창업 자금 지원을 즉각 연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상곤 의원(국힘, 평택1)은 “경기도가 2024년 9월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를 제도화했지만 제정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윤리 기준이나 지침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국힘, 안양2)은 “양자인공지능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핵심 분야”라며 “경기도가 제도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갖춰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은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를 지역별·연령별로 균등하게 배분해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학생들이 괴리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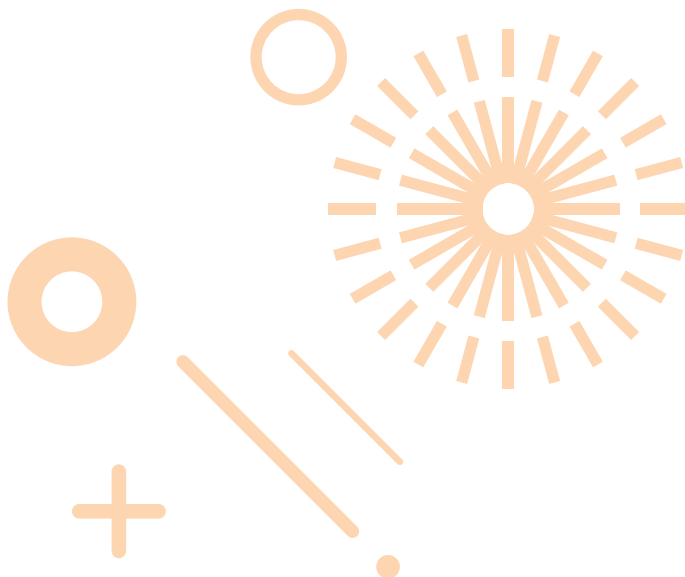
유형진 의원(국힘, 광주4)은 “예산을 삭감해 올렸던 12억 원 사업이 다시 편성된 만큼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서비스가 공정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은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도 「AI 기본법」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내부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 AI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 대응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경기도가 소버린 AI 기반 서비스를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만큼, 도민 대상 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2·3단계 추진 시 도민 대상 확대 여부와 중장기 계획 보고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4)은 “경기도 AI 데이터센터가 2월 16일부터 가동 예정인데, 그 전에 대피나 진화 등 화재에 대비한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사전 점검과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전통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들에 대한 AI 교육과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 설명회 등을 적극 고민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2026. 2. 6.)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 편의주의 벗어난 실효성 있는 전환 주문

청년정책부터 평생교육체계까지 점검
도민 삶을 위한 현장 체감정책 필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2월 6일과 9일 제388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소관부서와 기관의 2026년 업무보고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청취했다. 6일에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부서, 9일에는 이민국과 경기도서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

문형근 위원장(더민주, 안양3)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빨리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금 바닥 경기가 매우 어려우니 도민들의 활력소가 되도록 상반기에 서둘러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동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청년면접수당 제도에서 지원 횟수를 축소하는 것은 장기·다회 면접이 불가피한 청년구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면접수당이 구직 지원정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국힘, 양주2)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며 “각종 현금성·보편적 지원정책이 왜 필요한지는 논쟁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와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국힘, 고양6)은 “예식장 예약이 어려운 현실에 청년들을 위해 공유 예식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공공이라고 품질이 낮아선 안 되며, 선택과 집중으로 도민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정영 의원(국힘, 의정부1)은 “경기도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예산을 끌어모아 청년기본소득을 편성한 실태를 알면 도민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라며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청년 만족도 결과만으로 예산집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어떤 계획과 일정을 수립했는지 궁금하다”라며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과 관련해 지원 가능한 내용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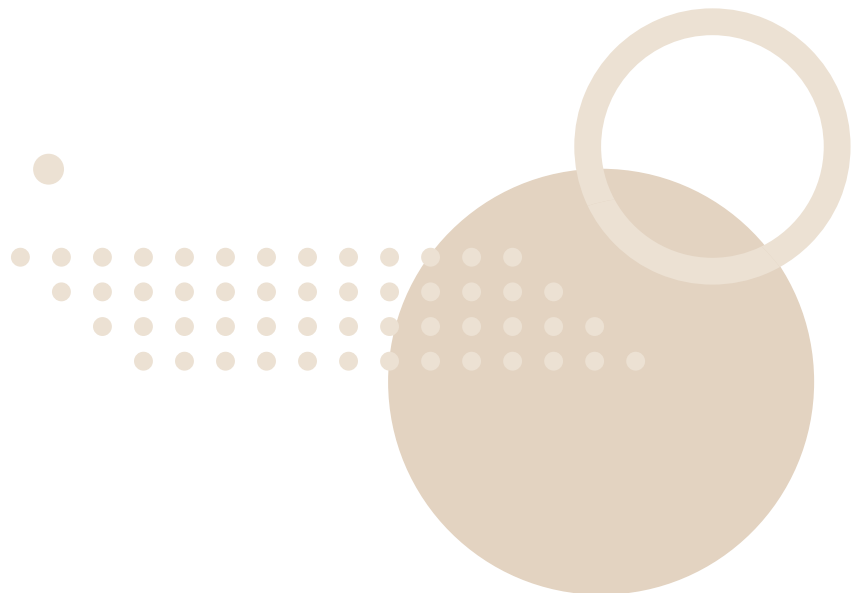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조례 개정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방법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부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인애 의원(국힘, 고양2)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조직 및 인사 제도 연구사업이 단순한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재단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인사 관련 우려가 해소되도록 체계적인 개선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계획이 일몰되며 많은 우려사항이 지적됐다”라며 “이 기회에 사업 자체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았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최효숙 의원(더민주, 비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디지털 학습에서 소외되거나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라며 “지역아동센터를 거점으로 스마트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와 희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명 의원(더민주, 성남6)은 “경기청년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의 현금성 지원이 절반 삭감됐고,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변경됐다”라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도 아쉽지만 제도 성격 자체가 후퇴한 것은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2026. 2. 9.)

교육기획위원회

건강한 경기교육의 미래 뒷받침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인사청문회 및 업무보고 청취
시부터 학교급식까지 다양한 의제 논의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제38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포함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안광률 위원장(더민주, 시흥1)은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며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택수 부위원장(국힘, 고양8)은 “경기도 내 공립교원의 10%에 달하는 대체 교원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라며 “퇴직교원을 기간제나 계약직뿐 아

니라 방과후교육과 돌봄, 유아교육과 일반 계약관리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인규 부위원장(더민주, 동두천1)은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의 성공 사례를 충분히 검증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교육 모델이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광민 의원(더민주, 부천5)은 “안전사고 지대에서 반복되는 학교의 안전사고가 안타깝다”라며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의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국힘, 용인7)은 “입시 과목 축소, 절대평가 실시 등 시 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성적 중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성수 의원(국힘, 하남2)은 “경기도교육청의 권역별 고문번호사를 운영하는 데 특정 지역에 사건이 쏠리고 담당 권역을 넘나드는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건 편중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정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더민주, 오산1)은 “자율선택 급식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인력 기준과 지원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라며 “운영 학교 확대 계획에 맞춰 단계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국힘, 과천)은 “아침 식사는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과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이 중식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 식사 여건을 정책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 문제로 사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며 “경기도만큼은 학교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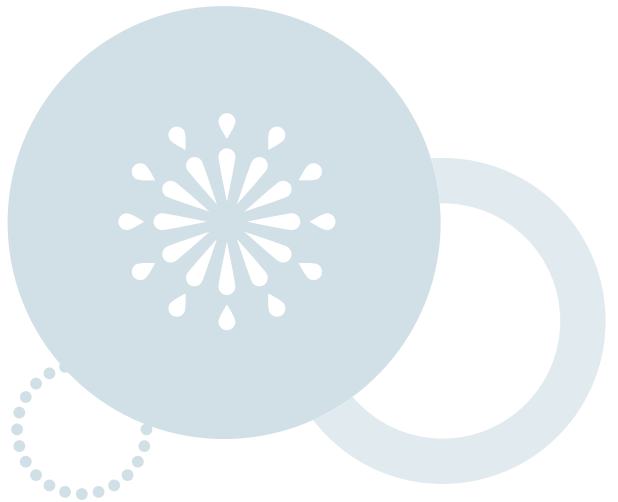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하이러닝 시범 학교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참관했지만 사용자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어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많은 사람이 손쉽게 접근해 사업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더민주, 화성4)은 “하반기 개교 학교의 인사 및 행정 공백 문제의 본질은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학교 운영 혼선을 예방하는 데 있다”라며 “학사 일정과 교원 인사를 고려해 유연한 개교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8)은 “학폭 심의는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로 학생의 권리와 교육적 판단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과정이다”라며 “심의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국힘, 가평)은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AI 교육 플랫폼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라며 “하지만 경기도 교육정책이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윤정 의원(더민주, 안산3)은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학교를 점검한 결과 소음이 심각한 데다 급기와 배기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의 성능이 확보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2026. 2. 9)

교육행정위원회

2026년 경기교육의 희망찬 첫걸음

교육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보고와 안건 심의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 개선에 역점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388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감사관,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교육국 등 총 17개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청취했다. 의원들은 경기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와 정책을 논의한 후 소관 기관에 세심한 행정 집행을 주문했다. 한편, 의원들은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하고 현안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애형 위원장(국힘, 수원10)은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행정국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적·재정적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근용 부위원장(국힘, 평택6)은 “광고신청사 이전 후 시행 중인 자율좌석제와 스마트워크 운영이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다”라며 “하지만 부서 내 결속력 약화와 부서 간

협력 저하라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한별 부위원장(더민주, 수원4)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상 전부·부분·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국힘, 의왕1)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라며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자 관리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일중 의원(국힘, 인천1)은 “학교 종합감사 이후 다음 감사까지 일정 기간 점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학교 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방 중심의 감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희철 의원(더민주, 화성6)은 “현장에서는 올해 초등 맞춤형 돌봄교실에 업체 계약률이 높아진 걸 체감한다”라며 “개인 위탁 비율이 높던 전년에 비해 업체 비율이 높아지며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줄어 현장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현장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문승호 의원(더민주, 성남1)은 “‘도시형 캠퍼스’ 제도에 대한 학교 설립 요건이 애매한 상황이다”라며 “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부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관계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미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현실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 대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세풍 의원(국힘, 김포2)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돌봄 환경이 함께 맞물린 사안이다”라며 “과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교실의 전반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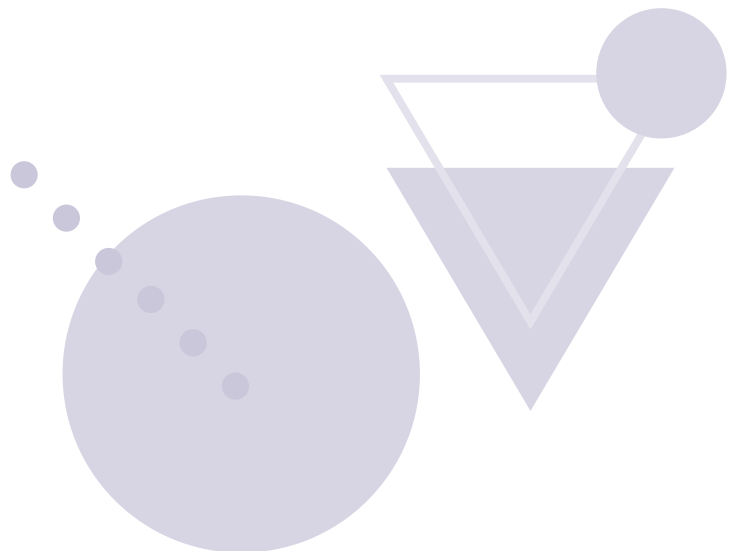
이서영 의원(국힘, 비례)은 “통학 안전은 아이들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문제다”라며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는 학교일수록 사람과 제도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지자체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정책으로 연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국힘, 구리2)은 “문화예술교육에 필수인 악기와 장비가 고가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학교나 지역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학생들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더민주, 비례)은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라며 “경기도 관내 응급구조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들과 연계해 전공자들을 현장체험 학습 보조 인력으로 수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더민주, 용인4)은 “교육청이 학생과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 경기도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중복되는 건 정리하고 청소년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초등 방과후학교는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공적 서비스로 안정적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관련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5분 인사이드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제11대 의원들이 경기도민을 대표해
심의 의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발표한 의견을 모았다.



“반도체 속도전, 인프라 해결 없이는 불가능”

김영민 의원
(국민의힘, 용인2)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이 송전탑 갈등,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에 더해 ‘산단 이전설’ 등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적기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산단 구축의 핵심인 ‘속도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이 산단 조성 스케줄과 한 치의 오차 없이 맞물리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적정규모학교는 ‘정리 기준’ 아닌 ‘지원 기준’이어야”

변재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



“이천시, 첨단산업도시 전략의 중심으로 세워야”

허원 의원
(국민의힘, 이천2)



반도체, 방위산업,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경기 동부 산업 축의 핵심입니다. 국가첨단산업 정책의 전환점 앞에서 이런 산업 기반을 갖춘 이천은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천산업진흥원 설립,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동부 SOC 대개발이 이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실행 축으로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맞물려 이어져야 합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인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주민들은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계획을 세운 주체가 먼저 이행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경기도가 명확한 행정적 결론을 내어 주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방치된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계획 행정 점검 촉구”

서현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3)



“반도체 글로벌 허브로 도약, 경기도가 사할 걸어야”

이제영 의원
(국민의힘, 성남8)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의 돌파구로 ‘성남 판교-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에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경기도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사명감으로 집행부가 강력하게 나서주십시오.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용도변경 계획으로 교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탄 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하며, 핵심은 학교 용지 확보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도시개발 변경으로 인한 학교 용지 공백, 교육청이 적극적 역할 해야”

신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4)



**“과밀 교실에 갇힌
판교 대장지구
교육 환경
반드시 개선해야”**

김진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6)



2021년 개교한 판교 대장 초·중 통합학교는 학생 과밀로 터지기 직전의 풍선과 같은 모습입니다. 학생 수 급증으로 교실이 부족해 급식실도 나눠 쓰고, 전용 교실은 다른 과목 교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초·중 통합학교가 안고 있는 비정상적 운영 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경기 유아교육의 절반 이상을 사립유치원이 담당하지만 통학 차량, 방과후 과정 지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불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치원의 원아 모집 경쟁을 부추겨 아이들은 먼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설립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한 유아교육 지원 기준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유아교육 지원,
아이들의 안전과
실제 수요가
기준 돼야”**

김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1)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난개발 막을
성장관리체계 마련”**

박명수 의원
(국민의힘, 안성2)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전면 개통은 경기 남부 공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입니다. 안성은 교통 인프라는 갖췄지만 개발 수요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계획적 관리의 틀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이 질서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성장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 중심 개발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국토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설 필요성과 별개로 입지 타당성과 주민 건강권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소통 없는 일방적 결정은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계획을 전면 검토하고, 경기도 역시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김옥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양평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 촉구”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 제한과 환경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낮고 요금은 가장 비싼 불합리한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는 양평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경기도가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는 필요하지만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정책이 도민 삶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책 방향은 옳지만 내연기관 차량을 소유한 대다수가 주차난 심화로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 갈등, 안전 문제도 존재합니다.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친환경차 정책으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정책 속도보다 완성도가 우선”

김창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AI·첨단산업 정책
실행력 위해
공업직 중심
인사 개편 필요”**

서성란 의원
(국민의힘, 의왕2)



경기도는 미래 핵심 비전으로 AI·첨단산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력을 좌우할 핵심인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인사 구조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미래는 슬로건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 인력에서 나옵니다. 공업직 중심의 인사·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학교를 떠나는 아이는 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밖청소년들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급식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안학교 교사의 처우 개선과 급식환경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기관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교밖청소년의
최후 보루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강화 촉구”**

박명숙 의원
(국민의힘, 양평1)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선제적 준비와
책임 실행이 절실”**

심홍순 의원
(국민의힘, 고양11)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이 개정되어 평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무른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제적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31개 시군, 1,420만 도민의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연간 6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복잡한 정산 절차와 수수료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관행적 지출을 도려내고, 살림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적 절감이 절실합니다. 예산을 늘리기 전 세금이 주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결제망을 혁신해야 합니다.

“재정의 미래는 ‘지출’이 아닌 ‘구조적 절감’에 있어”

조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2)



“경기아트센터 부지 교환, 경기도의 신속한 결단 필요”

한원찬 의원
(국민의힘, 수원6)

경기아트센터 부지 교환 등 이미 제시된 대안에 대해 경기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계동 경기아트센터는 부지는 수원시, 건물은 경기도가 소유한 기형적 구조입니다. 옛 도청사 부지와 교환해 수원시가 공간 활용의 주도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곳에 AI·반도체·바이오 기반 벤처창업공간을 조성한다면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대폭 축소되고, 스트레스 DSR로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 절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상황은 가장 심각합니다. 규제의 칼날이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주거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책 실패로 붕괴된 주거 사다리, 경기도가 구제 나서야”

이상원 의원
(국민의힘, 고양7)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시급”

명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5)



준공 30년이 넘는 일산 신도시의 전면적 재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인 용적률이 현실과 동떨어져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30년 도시공간구조를 혁신하는 국가적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고양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준용적률 상향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70년 넘게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의 미래를 위해 미군반환공여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제값을 받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토지 보상 비용이 높아지면서 민간 투자는 망설여지고 국가 주도 개발은 난항을 겪으며 소중한 땅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파주시민의 희생에 대해 반환공여지 무상양여라는 특별한 보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주의 미래를 위해 미군공여지 무상양여해야”

이용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3)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에게 묻다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과 조기 완공 촉구

김선희 의원
(국민의힘, 용인구)

Q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진행을 넘어 조기 착공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프라 조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A 김동연 지사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단순히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과도 직결되는 국가 과제입니다.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있고,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드립니다.



혼란 키운 사서교사 채용 불이익 문제, 교육청이 정리해야

안광률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1)

Q 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하고는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A 임태희 교육감

도교육청의 조치로 불이익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문제는 도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책임을 외면해 온 게 아니라 합법적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9 부동산 대책에 과천 시민 의견 반영은 필수

김현석 의원
(국민의힘, 과천시)

Q 경매장 이전을 전제로 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경기도는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천시민의 의견은 무엇이 반영됐습니까?

A 김동연 지사

큰 틀에서 국가가 부동산정책을 네 차례 내놓았는데,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인 계획에 경기도나 과천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노력하겠습니다.



월경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은 어디에

전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4)



Q 대통령께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하며 월경권을 민생과 인권 문제로 짚었습니다. 학교 화장실 생리대 비치율이 절반인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A 임태희 교육감

생리대는 일정 연령 이상 여학생들에게는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도 비치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생리대 비치율이 왜 절반 수준인지 점검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학습 지원, 취약계층 아동에게 고른 기회를

최효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Q 스마트 기기 없이는 기초 학습조차 따라가기 힘든 디지털 시대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스마트 학습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고른 기회가 필요합니다.

A 김동연 지사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전역 지역아동센터 중 25%에 지원을 했고, 지원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기회가 있을 때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예산의 틀도 전액 도비에서 시군과 함께 하는 것으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지연된 도봉산~목정 구간 개통, 신뢰 있는 추진 계획 제시 촉구

이영주 의원
(국민의힘, 양주1)



Q 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 추진 계획이 수차례 지연되며 개통 시점 전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개통 시점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김동연 지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경기 북부 대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 광역교통의 한 축이기에 2027년 말까지 준공 및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해 준공과 개통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광주시 광역교통 실태 점검 및 정책 수립 시급

이자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Q 경기도, 특히 광주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 이동이 활성화되어 기초지자체만으로는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광역교통 실태 점검 등 편리한 이동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A **김동연 지사**
수도권 광역교통 9개 축 중 동남부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데 동감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동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광역철도, BRT 등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동시에 경기도가 광역교통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된 신도시 학교 공백, 제도 설계부터 다시 해야

이석균 의원
(국민의힘, 남양주1)

Q 경기도 학교 정책에서 학생은 이미 유입됐지만 학교는 뒤늦게 따라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 후 수년간 학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 설계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A **임태희 교육감**
신도시 입주와 함께 적기에 학교를 개교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 중입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절차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에 정식으로 교육청의 참여를 공식화했고, 심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개선해 나갈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 경기도 공공기관부터 변화해야

이병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12)

Q 경기융합타운 지하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관리하던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이제 코앞인데 경기도는 이 변화를 위해서 도대체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A **김동연 지사**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영향 행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와 관행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사용자 인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표준과업지시서나 상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치된 교육청 유휴 부지, 지역사회 활용 시스템 고민 필요

문병근 의원
(국민의힘, 수원11)



Q 학생 수 감소, 학교 설립 계획 변경 등으로 유휴 부지가 늘고 있으나 계획 없이 방치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활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A 임태희 교육감

유휴 부지 학교의 활용은 지금 해당 지원청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청에서 과도한 책임이나 부담 때문에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지 점검하고, 지원청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건 도 교육청에서 결정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오산 세교3지구 자족도시 개발, 경기도의 의지와 지원 계획 촉구

조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2)

Q 세교3지구는 오산시의 도시 구조와 미래 성장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세교3지구가 일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자족도시로 개발되도록 경기도의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 김동연 지사

우선 차질 없이 계획된 시간에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교3지구 개발과 자족도시 실현에 대한 것뿐 아니라 앵커 기업이나 투자 유치 TF 등은 도와 시가 협의해 함께 할 것입니다. 자족 용지 공급과 활성화 방안 등을 지구 계획에 반영해 주민 보상 등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성공, 책임 있는 문서로 보장해야

윤재영 의원
(국민의힘, 용인10)



Q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행정 신뢰입니다. 경기도는 전력·용수 공급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약 가능한 일정표를 만들고 책임 있는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A 김동연 지사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전력·용수 문제를 계획한 대로 하겠습니다. 전력은 일반산단에 공급되는 약 6GW의 전력 중 3GW는 이미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도 지방도 318호선 공사 시 전력 공급망을 깔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의 20



도민의 삶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변화의 시기일수록
행정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하고
의회는 곁에서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민의 곁에서 함께 걸겠습니다.

기
리

수원역에서 행궁동까지
전통과 일상이 만나는

도시 산책



여행 코스



- 성곽·궁궐·시장·골목을 하루에 경험하는 압축형 도시 여행
- 추천 계절: 3~5월, 9~10월
- 이동 난도: 전 구간 도보 가능, 유아·어르신 동반도 무리 없음



수원역

수원역 4·5번 출구에서
팔달로 방향 직진
: 도보 30분

팔달문

팔달문 기준
행궁동 방향으로 이동
: 도보 7분



▲ 팔달문

봄기운이 기지개를 켜는 3월, 준비 없이 한나절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는 이곳에 가보자. 지하철을 타고 내려 걷기만 하면 만나는 도시, 수원이다. 1호선과 분당선이 만나는 수원역에서 시작해 행궁동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성곽과 시장, 하천과 골목을 따라 수원의 얼굴을 만나본다.

글 유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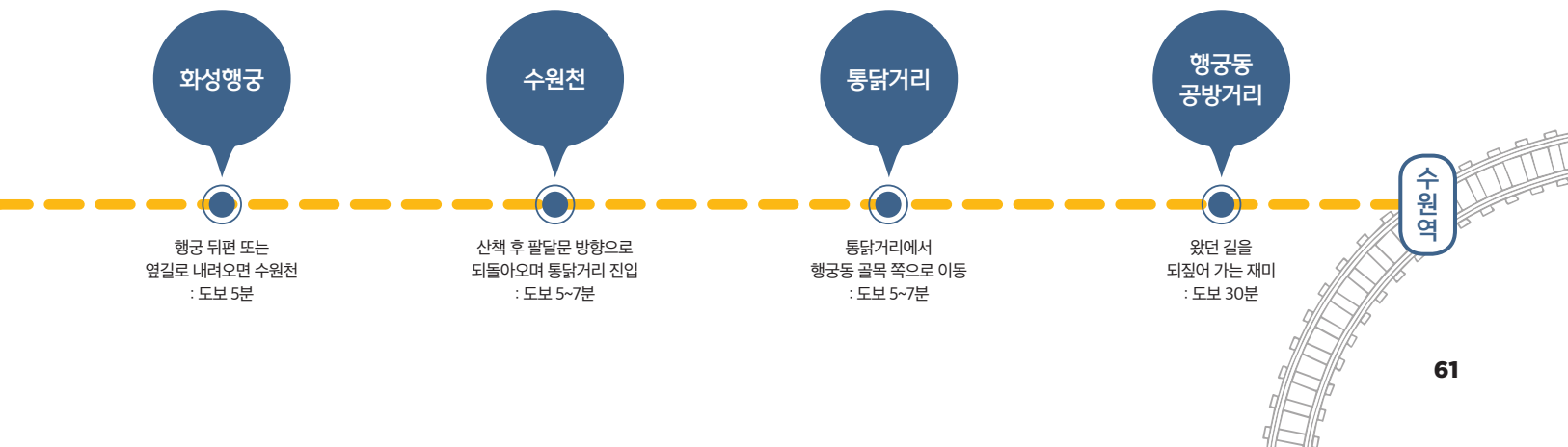
① — 여행의 출발점, 수원역

수원역 광장은 언제나 분주하다. 출근길 시민, 여행객,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교차하는 이곳은 ‘지금의 수원’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 주는 장소다. 하지만 몇 분만 걸음을 옮기면 풍경은 서서히 바뀐다. 대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고층 건물 사이로 낮은 지붕과 오래된 상가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도시의 속도도 한 박자 느려진다. 걷는 동안 만나는 길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다.

② — 팔달문, 성곽 도시의 남문에 서다

팔달문은 수원화성의 남문으로, 수원의 상징과도 같다. 웅장한 홍예문과 단단한 성벽은 수원이 ‘성곽 도시’였음을 한눈에 보여 준다. 사적이자 보물로 지정된 팔달문 앞에 서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수백 년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음을 느낀다. 예부터 상업의 중심지였던 팔달문 주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이어져 있어 성곽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수원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역사 유적과 함께 사람들이 오가며 살아 숨 쉬는 장소다.

tip 성문 외부 관람은 상시 가능, 팔달문 앞 광장은 봄철 사진 포인트.
인근은 전통시장, 카페·편의점 밀집 지역



③ 화성행궁, 정조의 꿈이 머물던 공간

팔달문에서 화성행궁까지 골목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어느새 넓은 마당과 단아한 건물들이 펼쳐진다. 화성행궁은 조선 후기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머물던 임시 궁궐로, 현존하는 행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행궁을 둘러보면 이곳이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정조가 새로운 정치를 꿈꾼 공간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단정하면서도 실용적인 건축, 열린 구조의 마당은 백성과 가까이하고자 했던 군주의 의지를 담고 있다. 안내문을 따라 이동하거나, 마루에 잠시 앉아 시간을 보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방문이 된다.

tip 화장실 있음, 매표소 인근 휴식 공간 마련.
일부 구역은 실내 관람 시 신발 벗는 구간 있음



▲ 화성행궁



▼ 방화수류정





▲ 화성행궁

④ __ 수원천 산책, 성곽 아래 흐르는 일상의 풍경

수원천은 수원화성 남쪽을 따라 흐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또 하나의 길이다. 성곽을 배경으로 흐르는 물길은 이 도시가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일상 속에 품고 있는지 보여 준다.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아이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잠시 벤치에 앉아 물소리를 듣는 여유를 가져보자. 걸음의 속도를 늦추는 이 구간은 수원 나들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쉽다.

tip 물길을 따라 평탄한 산책로, 3·4월 수원천 주변에는 개나리·벚꽃 등으로 초록이 만발. 벤치·그늘 풍부, 사진 찍기 좋은 구간

⑤ __ 통닭거리와 공방거리, 색다른 여행의 기억

수원천 산책을 마치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서면 바로 통닭거리와 행궁동 공방거리다. 통닭거리는 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 골목으로, 오래된 통닭집이 줄지어 있다.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이곳은 '지역의 맛'이 어떻게 문화가 되는지 보여 준다.

식사 후에는 행궁동 공방거리를 걸어본다. 작은 공방과 독립 상점, 전시 공간이 골목 곳곳에 자리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도자기, 가죽, 금속, 그림 등 다양한 수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고,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tip 통닭거리는 반 마리 나눠 먹는 코스도 추천.
공방거리에는 소규모 전시·체험 공간 다수, 일부 매장은 휴무일 상이함

⑥ __ 하루의 끝, 다시 수원역으로

여행을 마치고 다시 수원역 방향으로 발길을 돌린다. 아침에 출발했던 그곳이지만,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은 느낌이 다르다. 성곽과 궁궐, 하천과 골목을 지나며 만난 수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역사와 일상이 층층이 쌓인 생활 도시다.

특히 3월은 수원 구석구석을 걷기에 제법 좋은 달이다.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만나는 도시는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tip 왔던 길과 살짝 다른 골목 선택 추천.
버스 이용 시 10~15분 소요



▼ 통닭거리

바람과 초원 그리고 문턱 없는 길

평소 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은 봄을 닮았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설렘을 일깨우기 때문. 이를 잘 알고 있는 남양주 도민 조미성 씨는 이색적인 매력을 품은 몽골문화촌과 한강뮤지엄을 봄맞이 근교 여행지로 골랐다. 봄의 더 큰 설렘을 향한 그의 움직임은 이제 막 돌아난 꽃봉오리처럼 싱그러웠다.

글 강진우 사진 고평주





QR을 검색하면 조미성 도민님의 인터뷰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몽골문화촌

남양주 안에 자리한 '작은 몽골'

‘이색적인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몽골문화촌입니다.’ 몽골문화촌을 약 500m 앞둔 비금교에 다다르자, 이런 문구가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나들이를 계획하며 조미성 씨가 건넌 목소리가 생생히 떠올랐다. “새로운 봄이 코앞인 만큼 설렘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신선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가 왜 이곳을 첫 번째 여행지로 골랐는지를 직관적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조금 더 나아가자, 남양주 수동 특유의 유려한 산세 사이로 등글고 하얀 지붕을 얹은 건물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 모습만으로도 그곳이 몽골문화촌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잠시 뒤 조미성 씨가 탄 장애인이동지원차량이 주차장으로 접어들었다. 차에서 내린 조미성 씨의 얼굴은 미세먼지 한 톨 없이 청명한 초봄의 하늘을 닮아 있었다. 주변 전경을 눈으로 훑은 그가 외쳤다. “세 살 때부터 남양주에서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몽골문화촌에 와보네요!”

휠체어가 오가기 편리한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오르자 ‘몽골문화촌’이라고 적힌 주황색 간판 아래 백색수호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몽골의 번영과 성장을 의미하는 국가적 상징물이다. 그 당당한 위용에 넋을 놓고 구경하던 조미성 씨가 활동지원사의 손짓에 옆쪽 게르로 눈을 돌렸다. 드넓은 초원에서의 유목 생활에 맞춰 언제든 조립·해체할 수 있는 몽골의 이동형 전통 주택으로, 내부에는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 있었다. “TV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정말 신기하네요.” 게르를 둘러보는 조미성 씨의 눈이 몽골 초원 위에 떠 있는 별들처럼 영롱하게 반짝거렸다. 크낙새를 모티브 삼은 남양주 마스코트와 몽골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조형물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한 조미성 씨가 드디어 몽골문화촌의 백미인 몽골민속전시관에 발을 들였다.





게르를 본떠 원형으로 세워진 이 전시관에는 몽골의 전통 생활상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유물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전통문화라는 카테고리에 흥미가 많다면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을 가감 없이 담은 김홍도의 그림을 좋아한다고 밝힌 조미성 씨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몽골인들의 전통 생활용품, 복식, 악기, 사냥 도구 등을 꼼꼼히 살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남양주에 속한 ‘작은 몽골’은 이렇게 조미성 씨의 머릿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 한강뮤지엄 |

아름다운 강변과 함께 ‘오늘도 완벽!’

몽골문화촌을 알차게 돌아본 조미성 씨는 한강으로 방향을 돌렸다. 차로 30여 분을 달리자 한강의 드넓고 여유로운 경치가 펼쳐졌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그 앞에 자리를 잡은 미술관, 한강뮤지엄. 사람들이 일상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 공간이다.

차에서 내린 조미성 씨는 전시관에 들어서기에 앞서 한강의 풍경을 감상했다. 때마침 따뜻해진 공기와 초봄 특유의 기분 좋게 따뜻한 햇살, 상쾌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을 만끽하던 그가 문득 “저는 사실 이런 야외를 좋아하는 무척 활동적인 사람”이라며 탁구 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활동적인 일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동적인 그가 정적인 미술관을 두 번째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던 그때, 조미성 씨가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인간은 원래 자신과 다른 무언가에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인지 종종 예술 감상에도 나선답니다.”

이날 찾은 한강뮤지엄에서는 <오늘도! 완벽!>이라는 이름의 전시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완벽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와 완벽할 수 없는 인간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형상화한 미술 작품들이 조미성 씨의 시선을 강하게 잡아끌었다. 사진, 회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흥미로운 작품이 1층에 이어 2층까지 줄을 이었다. 조미성 씨는 그 사이에서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때로는 순수한 얼굴로 작품을 즐겼다.

2층 전시관 끄트머리에 마련된 카페에 닿자 조미성 씨가 비로소 몸을 전동 휠체어 등받이에 기댔다. 그만큼 작품 감상에 몰입했던 것이다. 따뜻하고 맛있는 차 한 잔을 손에 들자 감상에 젖어 있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시 작품들은 ‘완벽한 인간’이라는 바람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지만 몽골문화촌과 한강뮤지엄을 둘러본 저의 오늘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5명 내외의 일행과 함께 두 여행지를 즐겼다면 더 좋았겠다 싶었다는 조미성 씨는 조만간 마음 맞는 지인들과 함께 ‘오늘의 완벽한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리겠다는 당찬 계획을 밝혔다. 창문 너머의 윤슬 눈부신 한강이 그의 목표를 잔잔하게 응원했다.



여행지 Information

몽골문화촌

남양주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우호 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개관한 국내 유일의 몽골 상설 문화공간이다. 몽골의 전통문화와 800여 점의 전통 유물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시설을 현대화하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지만, 몽골 특유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635

☎ 031-590-2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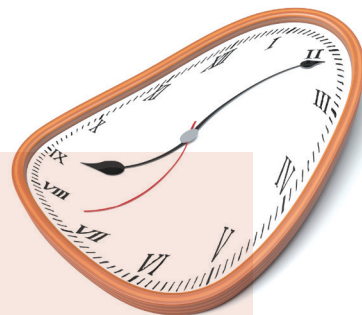
한강뮤지엄

생활 밀착형 주제를 형상화한 예술 작품과 한강의 경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미술관이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기획전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참신한 예술적 영감을 전한다. 또한 입장권을 구매하면 편안한 좌석에서 바깥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차 한잔의 여유도 만끽할 수 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926번길 30

☎ 0507-1380-2977





10월 17일, 안성남사당풍물놀이에 조선시대 최초의 아이돌인 바우덕이가 타임슬립해 나타난다.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무형유산을 기념·전승하고 전통문화를 K-콘텐츠 산업과 연계해 창작과 해외 진출까지 지원한다. 전통을 보존을 넘어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다.

글 편집실 일러스트 챗GPT

전통의 숨결을 ————— K-컬처와 ————— 잇다

경기도 무형유산의 날과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조례가 바꾼 도민의 하루

Scene 1

바우덕이와 도민,
전승의
현장에서
만나다

무대가 끝난 뒤, 바우덕이는 행사장을 둘러보던 학생과 이야기를 나눈다.

학생 ____ 할머니와 남사당패 공연을 보러 왔어요. 예전엔 영상으로만 봤는데, 올해는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덕분에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체험 부스도 운영해 정말 신나요.

바우덕이 ____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전통을 함께 즐긴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예전엔 길 위에서 재주를 부리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지. 오늘은 이렇게 큰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참으로 기쁘다.

학생 ____ 학교에서도 무형유산 주관을 맞아 줄타기와 풍물놀이를 배웠어요. 전승자들이 직접 방문해 수업해 주신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우덕이 ____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잊지 않겠다고 마음을 모아준다면, 그날은 그 자체로 큰 잔치가 아니겠느냐. 전통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숨결 속에 살아 있는 법이니라.

학생 ____ 바우덕이님은 다섯 살에 남사당패에 들어가 열다섯 살에 최초의 여성 꼭두쇠가 되셨다면서요? 저는 물론 친구들도 다 놀랐어요.

바우덕이 ____ 1865년 흥선대원군 앞에서 공연하고 옥비녀를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학

생 여러분이 전통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보람이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전통놀이 체험 부스로 향한다. 행사장은 무형유산이 오늘날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Scene 2

바우덕이와 도의원, 문화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행사가 끝난 뒤, 바우덕이는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을 만난다.

바우덕이 ____ 예전엔 장터에서 북을 울렸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락과 재주가 바다 건너까지 간다니, 참으로 세상이 넓어졌군요.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3) ____ 설화, 한복 등 전통을 활용한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 콘텐츠산업'을 정의하고, 전국 최초로 육성 기반을 마련했지요.

바우덕이 ____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3) ____ 도지사의 책무로 창작, 제작, 유통,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계획 수립, 교육과 R&D,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합니다. 시군, 기관, 기업, 대학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바우덕이 ____ 재주가 밥이 되고 재주가 다음 세대의 꿈이 된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고마운 일이겠지요. 유명두 의원님, 전승은 알겠지만 '기억의 날'이라는 이름이 인상적입니다. 왜 '기억'을 함께 담으셨습니까?

유영두 의원(국힘, 광주1) ____ 무형유산은 형태가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기술과 이야기, 숨결도 함께 사라질 수 있지요. 그래서 단순한 보존을 넘어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우덕이 ____ 무형유산은 사람 속에 남는 것이니까요.

유영두 의원(국힘, 광주1) ____ 맞습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10월 17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 주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연, 전시, 학술 행사, 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요.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도민이 기억할 때, 무형유산은 오늘의 문화가 됩니다.

바우덕이 ____ 사람이 잊지 않으면 가락은 다시 울리고 발놀림은 또다시 마당을 밟게 되지요. 마음에 남는 것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법입니다. 무대가 사라져도 사람의 마음에 남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요.

세 사람은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K-콘텐츠 부스를 함께 둘러본다. 전통의 숨결과 현대 문화산업이 어우러지며 경기도민의 하루가 한층 풍요로워지고 있었다.

학교의 경계를 넘고 세상의 문을 넓히다



학교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고,
교실 안 구성원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다.
경기도의회는 변화 앞에
멈추지 않고 교실에 먼저
닿는 제도를 준비했다.
통합운영학교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두 조례는 출발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글 유현경



학교 구조의 변화를 대비하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는 경기도 교육 현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늘고 초중고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연계, 행정 부담, 시설 활용 등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김옥순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가 2025년 12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통합운영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 지원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직원 연수와 학교급 간 연계 운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통합운영학교로 학생의 성장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만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조례를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지원

교실 안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이 늘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학습과 학교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들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다.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다.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학업, 진로, 심리적 안정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적응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이를 이유로 뒤쳐지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호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 여건 속에서 학업과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와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길을 내고 있습니다.





사라진 정류장

멈춘 일상, 다시 이어진 길

경기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글 강나은
일러스트 챗GPT

1. 멈춘 일상

3월의 아침은 아직 차가웠다. 이른 봄이지만 바람 속에는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었고, 숨을 내쉬면 희미하게 입김이 피어올랐다. 지현은 패딩 안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집에서 정류장까지는 7분이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출근 루트가 그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풍경이 달랐다. 줄을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유리벽 앞에 서너 명이 모여 있었다. A4 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적자 노선 정비에 따라 711번 노선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현은 안내문을 두 번 읽었다. 글자는 분명한데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711번은 이 동네에서 시내로 나가는 유일한 직행 노선이었다. 아침 7시 12분에 도착해 8시 5분에 환승역에 내려주던 생활의 뼈대 같은 버스였다. 휴대폰으로 교통 앱을 열어 검색하자 “해당 노선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어제까지 실시간 위치가 보이던

화면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녔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야?” 어르신이 중얼거렸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현은 시계를 보았다. 7시 14분, 이미 버스가 와야 할 시간이었다. 정류장은 그대로인데 버스만 오지 않는 기이한 아침이었다. 바람이 불고 전광판은 꺼져 있었다. 도착 시간도 노선 번호도 없는 검은 화면이 암담했다. 지현은 전화기를 쥔 채 택시를 부를지 남편에게 전화할지 회사에 연락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어떤 선택도 711번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뒤늦게 온 학생 둘이 안내문 앞에 멈춰 섰다. 한 명은 숨을 삼켰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정류장을 살폈다. 익숙한 아침이 한 장의 안내문으로 끊긴 순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2. 움직이는 사람들

이들이 지나자 불편은 더 선명해졌다. 711번이 없는 아침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흔들었다. 지현은 첫날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가 세 배 넘는 교통비에 놀랐고, 둘째 날에는 두 번 환승하는 우회 노선을 탔지만 출근 시간이 50분 늘어났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시간까지 더하면 하루의 시작은 전쟁처럼 바뀌어 있었다. 그것은 지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파트 앞 카페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다. 병원에 다니던 어르신은 진료를 미뤘고, 학원에 가던 학생들은 부모의 차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조용하던 동네 맘카페에는 하루 만에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다. 사흘째 아침 지현은 주민센터를 찾았다. 민원실에는 이미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한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아침에 끊으면 어떡합니까? 공지도 없이, 대안도 없이!” 담당 직원은 버스 운영사가 적자를 이유로 철수했고 대체 노선을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협의 중’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답이 되지 못했다. 얼굴마다 분노보다 답답함이 짙었다. 지현은 민원서를 쓰다 TV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경기도 내 적자 노선 정비 본격화’라는 자막 아래 경기도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지난해 지역 축제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묻던 이 지역구 의원이었다. “저분, 우리 지역 의원 맞죠?” 옆자리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통학로 문제도 직접 챙겨주셨던 김서연 의원이에요.” 민원실을 나서며 주민 몇 명이 자연스럽게 모였다. “의원실에 직접 이야기해 보면 어때?” 그 말에 지현은 그날 저녁 주민 대표로 탄원서 초안을 작성했다. 개인의 불편은 그렇게 공동의 목소리로 바뀌기 시작했다.

3. 도의회, 문제를 열다

탄원서가 접수된 지 열흘 뒤, 경기도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 불이 켜졌다. 넓은 반원형 테이블에 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정면에는 경기도 교통국장과 관계자

● ●

“어제까지만 해도
다니던 버스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 알림

이 소설은 작가의 창작
논픽션으로, 상황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의
실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들이 자리했다. 안건은 ‘경기도 내 적자 노선 폐지 현황 및 대안 점검’. 자료 첫 장에는 711번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서연 의원이 마이크를 당겼다. “지난 한 달간 중단된 노선이 몇 개입니까?” 교통국장이 답했다. “이번 분기 8개가 정비 대상이고 그중 4개가 중단됐습니다.” “그 4개 노선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확인하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답이 이어졌다. “711번 이용객은 하루 평균 320명입니다. 다만 수익성 기준으로는...” “320명입니다.” 김서연 의원이 말을 이었다. “대안 없이 끊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장인과 어르신, 학생이 있습니다. 수익은 적을 수 있어도 이동은 권리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대안이 없다는 건 답이 아닙니다. 공공형 버스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회의는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 예산과 운영 방식, 노선 설계가 논의됐다. 쉽지 않았지만 대화는 시작되었다.

3주 뒤 본회의장 전자투표판에 「공공형 교통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올랐다. 적자를 이유로 사라지는 노선을 도비로 지원해 공공형 시범 노선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김서연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이 조례안은 버스 한 대를 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으로 쥔 수 없는 길이 있고 그 위에 도민의 하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한 표가 내일의 도민이 걸을 길이 됩니다.” 전자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지현도 그 자리에 있었다. 손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박수를 치며 텅 비어 있던 정류장의 아침을 떠올렸다. 아직 정류장은 조용하겠지만 곧 도착 시간을 기다리는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울 것 같았다.

앞으로 의정웹소설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민생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모습을 전합니다.



● ●

“오늘의 한 표가
내일의 도민이
걸을 길이
됩니다”



4. 다시 달리는 버스

늦은 4월 월요일 아침, 공기에는 옅은 벚꽃 향기가 섞여 있었다. 지현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서 정류장까지 7분의 익숙한 길을 걸었다. 전광판에 다시 불이 들어와 있었다. “공공 711번 7:12 도착 예정.” ‘공공’이라는 두 글자만 달라졌을 뿐 같은 번호였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다.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 교복 차림의 학생들. 한 달 전 안내문 앞에 서 있던 그 얼굴들이었다. 7시 12분, 모퉁이를 돌아 버스가 나타났다. 차체에는 ‘경기도 공공형 시범 노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어르신이 먼저 올라 카드를 찍었고 학생들이 뒤따랐다. 지현은 아이를 올려보내고 손잡이를 잡고 올라섰다. 늘 하던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버스가 출발하자 아파트 사이 길과 편의점 앞 화분, 학교 담장 위 벚나무가 천천히 스쳐 갔다. 아이가 창에 얼굴을 붙이자 지현은 머리를 숙여내렸다. 교차로를 지날 때 가로등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경기도의 회가 함께합니다.” 폐노선 안내문 앞의 막막함과 주민센터의 답답함, 탄원서를 쓰던 밤과 방청석의 박수가 스쳐 지나갔다. 그 시간을 건너 지금의 평범한 아침이 돌아와 있었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특별한 일을 말하지 않았다. 사라졌다가 돌아온 일상은 그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기억해야 할 이름 이어질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용녀 할머니

이용녀 할머니는 16세에 일제에 속아 끌려간 곳에서 겪은 참혹한 시간으로 해방 이후에도 평생 고통 속에 살았다. 그럼에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2000년 도쿄 국제 법정에서 증언하며 역사의 진실을 알렸다. 아들 서병학 씨는 어머니가 201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의 공식 사죄를 받지 못한 점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전한다.

글 강나은 사진 고평주

짓밟힌 청춘, 끝내 받지 못한 사죄

1926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소녀는 자연과 동물을 좋아하고 뒷밭을 가꾸던 평범한 아이였다. 소녀가 16세 되던 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제의 말에 속아 집을 떠났고 타이완과 싱가포르를 거쳐 미얀마까지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견뎌야 했다. 해방 후 부산으로 돌아온 그는 이용녀라는 이름으로 남은 생을 살았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한곳에 머물기 어려웠던 그는 아들 서병학 씨의 집과 나눔의집을 오갔다. 2000년 도쿄 '여성 국제전범 법정'에 서서 용기 내 증언했지만 끝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받지 못한 채 2013년 광복절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울분 속에서 어머니를 이해하다

아버이날을 앞두고 추모공원을 찾은 서병학 씨는 어머



어머니의 슬픔과 한이 맺힌 시간을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떠올리며 말을 잊지 못했다.

“꽃다운 청춘을 참혹한 고통 속에서 보내시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뒤흔트리게 자기 삶을 살지 못하신 어머니의 기구했던 삶을 되돌아보면, 어머니의 슬픔과 한이 맺힌 시간을 제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 이후 외삼촌을 통해 어머니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가족에게조차 쉽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어린 소녀들이 속아서 끌려간 곳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고, 울분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로하려 애썼다.

나눔의집에서 피운 작은 행복

이용녀 할머니는 화통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나눔의 집’에 오신 후에는 주변에 텃밭을 일구어 작물을 재배

하고 수확한 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기를 좋아했다. 꽃을 가꾸고 강아지와 닭을 키우며 소일하는 것이 행복이었다. 마을 주민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며 마을 이장을 아들처럼 여기고, 막걸리 한잔할 때면 노래를 부르곤 하셨다.

“어머니는 당신이 입었던 치욕스러운 상처를 아들인 저에게조차 내보이는 것을 조심스러워하셨습니다. 대신 나눔의집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작은 행복을 누리셨죠.”

기억해야 할 역사

경기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 교육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여주에는 이용녀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고, 나눔의집 기념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 부족과 예산 문제 등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다. 나눔의집과 역사관은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인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끝나지 않은 싸움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병학 씨는 유족들과 함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촉구하며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저와 유족회는 무엇보다 일본의 공식 사죄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대신해 피해자의 배상책임과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머니들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려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프로젝트는 유족들의 이러한 바람과 맞닿아 있다. 일시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정책을 통해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할머니들의 증언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책임이다.



환절기, 몸의 리듬을 맞추는 시간

면역을 다스리는 생활 습관

아침저녁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체계도 흔들리기 쉽다. 면역력은 특별한 관리보다 일상에서 무엇을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계절이 바뀔 때 우리의 준비물도 함께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글 유현경

면역은 높이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

면역력은 흔히 병에 잘 걸리지 않는 힘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몸이 균형 있게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옳다. 환절기에는 일교차, 미세먼지 등 여러 자극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신체 리듬이 깨지기 십상이다. 이 시기에는 체온 조절과 수분 균형이 흔들리기 쉬워 평소보다 금방 피곤해지거나 감기 증상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면역체계가 약해졌다기보다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흔히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환절기 면역 관리의 핵심은 '조절'에 있다. 단기간에 면역력을 끌어올려야겠다는 부담감에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는 오히려 몸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대신 일상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면, 식사 시간 등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에 맞춰 몸도 천천히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체온과 수분을 지키는 것이 먼저

환절기 면역 관리의 출발점은 체온 유지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도 함께 약해지기 마련이다. 얇은 겉옷 하나 챙기는 습관은 단순한 보온을 넘어 체온 변화로 인한 피로를 줄여 준다. 특히 외출 시 체온 관리는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한다.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하다. 공기가 건조한 환절기에는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고, 이는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력을 떨어뜨린다. 감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하루 동안 나눠 마시는 습관이 면역 관리에는 더 효과적이다.

장 건강은 곧 면역력의 기초

환절기에는 감염성 질환이 늘어나는 만큼 면역력을 키우는 동시에 불필요한 감염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손 씻기와 위생 관리는 여전히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외출이 잦다면 개인 물병이나 휴대용 손소독제를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사 역시 면역력과 직결된다. 면역세포 상당수가 장에 분포해 장 건강은 곧 면역력의 기초가 된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삼가고 제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면역 관리는 무엇을 더 챙겨 먹기보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하기보다 덜어내는 면역 관리

면역력은 휴식 중에 회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몸은 외부 자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절기에는 의식적으로

하루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취침 시간,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작은 습관이 모여 우리 몸의 회복력이 향상된다. 건강관리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덜 하느냐가 면역력을 높인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 준비물도 함께 점검해 볼 때다.

면역력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최근 2주를 기준으로 떠올려 보세요

-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
- 가벼운 피로감이 며칠씩 이어진다.
- 환절기마다 감기나 몸살을 앓는다.
- 목이 자주 건조하거나 칼칼한 느낌이 든다.
-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사 후 자주 더부룩하다.
-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주 깬다.

※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보다 생활 리듬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보아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급히 병원에 가야 할 때처럼 택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요즘은 길에서 한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을 몇 번만 터치하면 손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다. 아래 설명을 따라 해보자. 생각보다 간단하다.

글 유현경

손 흔들어 잡던 택시는 이제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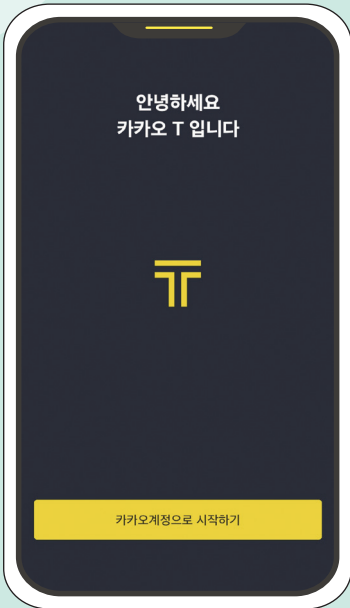
예전에 택시를 잡으려면 길가에서 손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기도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다. 가는 곳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택시기사의 정보와 차량 번호가 내 휴대전화에 남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특히 혼자 이동하는 일이 잦은 시니어에게 스마트폰 택시는 편리함과 안전을 함께 책임져 주는 방법이다.

먼저 준비할 것은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려면 택시 앱만 설치하면 된다. 종류가 여럿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조작하기 쉬운 '카카오 T' 앱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경기도 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앱을 처음 열면 위치나 전화, 사진 접근을 허용해 달라는 문구가 나올 수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본 설정이므로 '허용' 또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르면 된다.

차근차근 따라 해보기(예시: 카카오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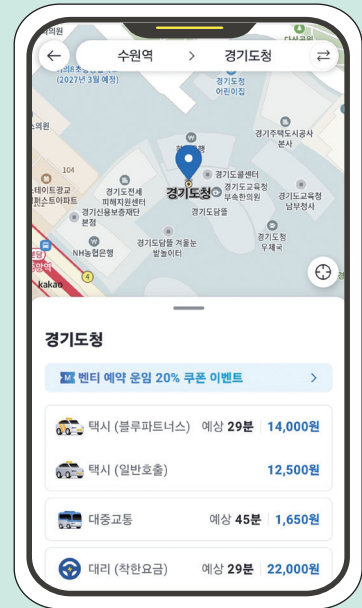
앱 설치하고 열기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열고 '카카오 T'를 검색해 설치한다. 설치 후 앱을 열어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하고 결제 수단을 한 번만 설정하면 준비 완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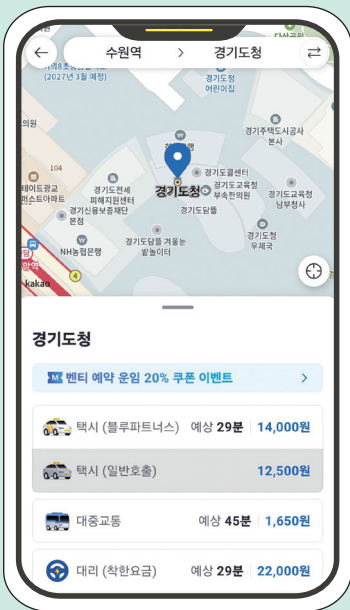
'택시' 아이콘 터치하기

앱을 열면 여러 아이콘이 보인다. 그중 '택시' 아이콘을 선택한다.



출발지와 도착지 설정하기

출발지는 보통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다른 곳에서 타고 싶다면 화면을 눌러 주소를 변경하면 된다. 도착지는 'OO병원', '△△시장'처럼 아는 이름 몇 글자만 입력해도 된다.



차량 선택 후 '호출하기'

일반호출, 벤티(대형), 블루파트너스(바로 배차), 블랙(프리미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보통은 일반호출을 이용하고 차량을 선택한 뒤 '호출하기'를 누르면 예약이 완료된다.



타고 내릴 때 확인하기

배정된 차량 번호와 도착 시간이 화면에 표시된다. 탑승 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도착 후에는 자동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초보 택시 앱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점

Q.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면 요금이 더 비싸지 않나요?

A.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택시 요금과 같다. 다만 일반, 블루, 벤티, 블랙 등 차량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Q. 경기도 외곽에서도 이용 가능한가요?

A. 경기도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Q. 호출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A. 스마트폰 화면에 현재 호출 상태에서 화면 아래쪽이나 가운데에 '취소하기' 또는 '호출 취소' 아이콘을 터치한다.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취소가 완료된 것이다. 별도로 기사에게 전화할 필요도 없다. 배차 후 기사가 출발하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하루는 늘 밥에서 시작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무엇부터 할까.
조선시대 경기도에 살던 평범한 사람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했다. 언제나 밥
짓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했다.

글 유현경

불 피우던 아침, 버튼 누르는 아침

예나 지금이나 아침을 활기차게 열기 위해서는 ‘밥’이 필수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같은 듯 다르다. 오늘 우리는 아침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 전기밥솥의 버튼을 누르거나, 냉장고에서 간편식을 꺼낸다.

우리 선조들도 부엌에서 ‘밥’ 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대부분 집에는 부엌과 아궁이가 있고, 밥은 가마솥에 지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쌀이나 잡곡을 씻어 불리고, 아궁이에 장작이나 짚을 넣어 불을 지폈다. 불 세기를 조절하는 건 중요한 일이었다. 불이 세면 밥이 타고, 약하면 설익기 때문이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였고, 가족이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 밥 짓는 일은 여성의 몫이었고, 밥맛은 집안 살림의 수준과 직결된다고 여겼으며, ‘밥 잘 짓는 사람’이 살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귀했던 밥, 선택지가 된 밥

우리 선조들이 오늘날처럼 매 끼니 쌀밥을 먹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쌀이 귀했던 만큼 보리, 조, 수수, 콩을 섞은 잡곡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개 하루 두 끼를 먹었고, 점심은 간식·요기였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하루에 두 끼만 먹지는 않았다. 19세기 중엽 이규경의 저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2월에서 8월까지의 하루에 세 끼를 먹고, 9월부터 정월까지의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고 나온다. 대신 밥그릇은 고봉으로 수북이 담았다. 밥 한 그릇은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였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 끼 식사로 꼭 밥만 먹지는 않는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풍족하기 때문이다. 밥, 빵, 면, 샐러드 등 선택지가 늘어난 반면에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일도 흔해졌다. 몸을 지탱하는 밥의 역할은 변하지 않지만, 밥의 무게만큼은 가벼워졌다.

함께 먹던 밥, 각자 먹는 밥

선조들에게 밥은 공동의 음식이었다. 일반 백성은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었고, 논밭에서 일하다 먹는 새참도 여럿이 나눠 먹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였다. 밥이 부족했던 예전이나 풍족한 지금이나 “밥은 먹었느냐”라는 말은 단순한 질문을 넘어 안부를 묻는 인사다. 밥을 먹었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텼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밥은 먹었느냐”라는 말은
안부를 묻는 인사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식사 예절도 중요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아이들은 그 뒤를 따랐다. 밥을 남기는 일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겼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

방식은 달라져도 의미는 그대로

옛사람들은 아침밥을 먹으면 들로 나가 일을 하고, 점심은 간단히 먹거나 새참으로 대신했다. 해가 지면 저녁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밥 먹는 시간은 곧 쉬는 시간이었고, 대화와 소식이 오가는 자리였다.

밥은 오늘날도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기준이다.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일정이 나뉘고, 저녁밥은 하루를 끝내는 신호다. 대신 방식이 달라졌다. 밥 대신 빵이나 간편식을 먹고, 밥 짓는 일은 전기밥솥 하나면 큰 노동이 아니다. 혼자 먹는 아침, 이동 중에 해결하는 식사도 낯설지 않다.

선조들에게 밥은 생존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택이 되었다. 그러나 밥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은 변함이 없다. 부엌에서 시작된 하루는 시대를 건너 지금까지 이어진다. 솥과 아궁이는 사라졌지만 하루를 밥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 골목과 시장에 우리가 있었다

건물 사이 자연스레 이어진 골목은
추억으로 향하는 길이다.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문방구, 만화방,
분식집, 목욕탕, 시장까지 삶의
장면이 이어진다. 우리 일상이
가득했던 그곳으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글 유현경
사진 한국저작권위원회, 경기도메모리



01 골목이라는 작지만 특별한 세계

골목은 사람의 속도로 머물 수 있는 생활 공간
이었다. 이웃의 얼굴을 마주하고, 가게는 간판
보다 사람으로 기억됐다. 아침엔 슈퍼 앞을 쓸
고, 점심엔 시장으로 향하고, 하교 시간엔 아이
들로 북적였다. 골목은 늘 살아 움직였다.

02 다방과 분식집, 세대가 섞이던 자리

다방은 어른들의 쉼터였다. 약속 시간을 기다
리고 동네 소식을 나누던 느린 시간의 공간이
었다. 아이들과 청소년에게는 분식집이 있었
다. 떡볶이와 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던 자리.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골목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03 작은 세상의 중심, 문방구와 만화방

문방구는 아이들의 작은 사회였다. 용돈을 손에 쥐고 뭘 고를지 한참 고민하던 시간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만화방은 조용한 탈출구였고, 오락실은 요란한 놀이터였다. 아이들은 그 공간에서 친구와 추억을 쌓아갔다.

04 시장, 동네의 심장이 뛰던 곳

시장은 동네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었다. 상인들의 목소리와 흥정이 오가고 안부를 묻는 말이 자연스러웠다. 목욕탕 역시 하루를 정리하는 공동의 쉼터였다. 골목은 사람을 이어주는 생활의 중심이었다.

05 지금의 골목, 무엇이 달라졌을까

오늘날 골목은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한 동네를 찾는다. 편리함 속에서도 단골 가게와 늘 오가던 길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경기도의 골목은 변화 속에서도 기억을 품고 오늘을 이어간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함께 지금도 변화 중이다. 하지만 그 변화 위에 수많은 기억이 층층이 쌓여 있다. 그 기억이 모여 오늘의 경기를 만든다.



독자 이벤트

당신의 '단골 가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린 시절 자주 찾던 문방구나 시장, 분식집의 기억을 남겨 주세요.
가게 이름과 위치, 짧은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선정된 이야기는 295호 '독자 숨씨 마당'에 소개됩니다.
골목은 변해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의회툰’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쉽게 풀어낸 웹툰입니다.
 도민의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의회의 역할을 전합니다.



봄을 먹고, 보고, 빛다 경기도 4월 축제·전시 산책

양평 축제

봄을 먹고 보고 즐기자~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에는 양평의 대추, 버섯, 산나물 등이 진상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역사에 기반해 2008년 시작된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올해로 제16회를 맞았다. 전통의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기간 2026. 4. 24.~4. 26.
장소 양평 용문산관광지, 용문역 일원
요금 무료
문의 031-770-1079
홈페이지 ypsannamul.kr

이천 축제

흙과 불로 예술을 빛다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은 전통과 현대 도자 문화를 이어온 고장이다. 제40회를 맞은 이천도자기축제는 그 가치를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물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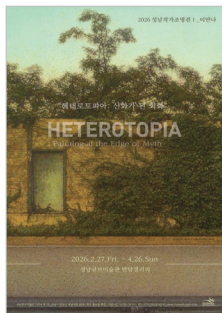


기간 2026. 4. 24.~5. 5.
장소 이천도자예술마을, 사기막골 도예촌
요금 무료
문의 031-645-3683
홈페이지 icheon.go.kr/icheonceramic

성남 전시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경험하는 순간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2026 성남작가조명전>의 첫 전시는 30여 년간 구상 회화를 이어온 이만나 작가의 작업 세계를 조명한다. '헤테로토피아'는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다가오는 순간을 뜻하며, 작가는 주변부의 대상과 장소를 화면 중심에 놓아 일상의 감각을 새롭게 환기한다.



기간 2026. 2. 27.~4. 26.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요금 무료

문의 031-783-8142~9

홈페이지 snart.or.kr

파주 전시

파괴하면서 창조되는 새로운
진더펑 개인전: 명멸하는 장엄

중국 화가 진더펑은 '그림을 부순다'는 주제 아래 '파각(破壳)', '파동(破洞)', '파해(破解)' 연작을 선보여 왔다. 이는 미술의 관습을 깨겠다는 선언이자, 파괴를 통해 창조와 이원성의 통합을 모색하는 회화적 시도다.



기간 2026. 2. 27.~4. 26.

장소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요금 3,000원(카페 이용 시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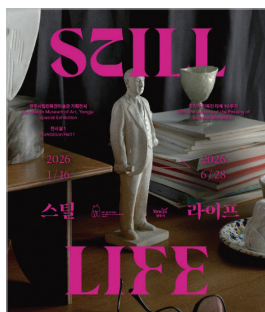
문의 031-992-4400

홈페이지 whiteblock.org

양주 전시

조각의 정적인 경계를 허문다
스틸 라이프 Still Life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은 민복진 작가 타계 10주기를 맞아 전시를 마련했다. 민복진은 인체 중심의 모자상과 가족상을 통해 인간애를 표현해 온 한국 현대조각 1세대 작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의 인체 조각을 관찰하고 직접 그려보며 작품 세계를 되짚는다.



기간 2026. 1. 16.~6. 28.

장소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요금 무료~5,000원

문의 031-8082-4255

홈페이지 yangju.go.kr/minbokjin/index.do

과천 전시

100년 서양미술을 한자리에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상들리에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상들리에>전은 이견희 컬렉션을 중심으로 클로드 모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등 인상주의 거장과 바비라 크루거, 안젤름 키퍼, 쾨프만 등 해외 작가 33명의 작품 44점을 선보인다.



기간 2025. 10. 2.~2027. 1. 3.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요금 과천 전시관람권 3,000원

문의 02-2188-6000

홈페이지 mmca.go.kr/visitingInfo/gwacheonInfo.do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소식지 통해 의정 이해에 도움”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도민의 삶과 의정을 잇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독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8%가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데 소식지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책과 조례를 일상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가치로 꼽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이 전한 평가와 제안,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를 함께 소개합니다.

도민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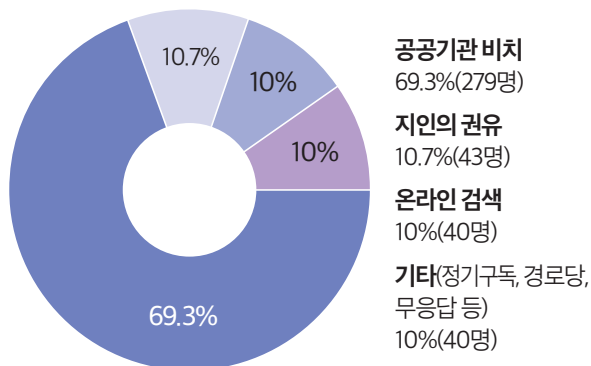


주 관 경기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과(홍보팀)
기 간 2025. 3. 19.~10. 29.
방 법 소식지 내 ‘독자 모니터링’ 코너 운영
참여건수 총 60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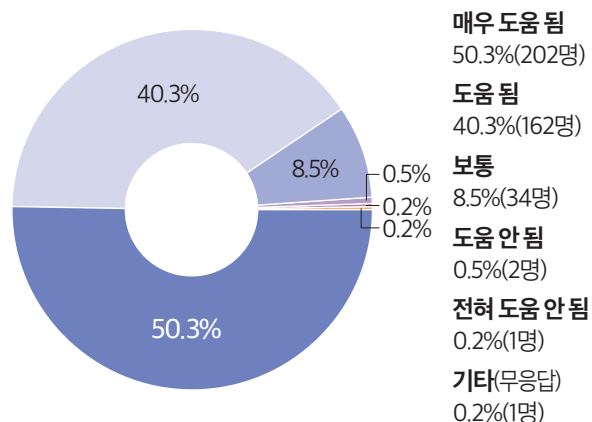
• 구글폼 활용 전송: 402건 • 소식지 기재 후 사진을 문자 전송: 199건

도민 설문조사 세부 한눈에 보기 (구글폼 402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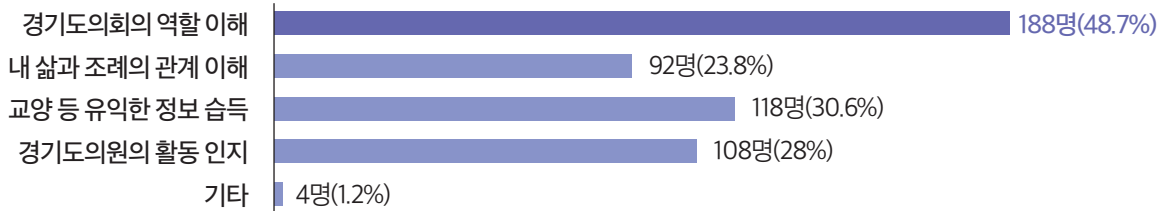
소식지를 어떻게 만났나요? (응답 수=40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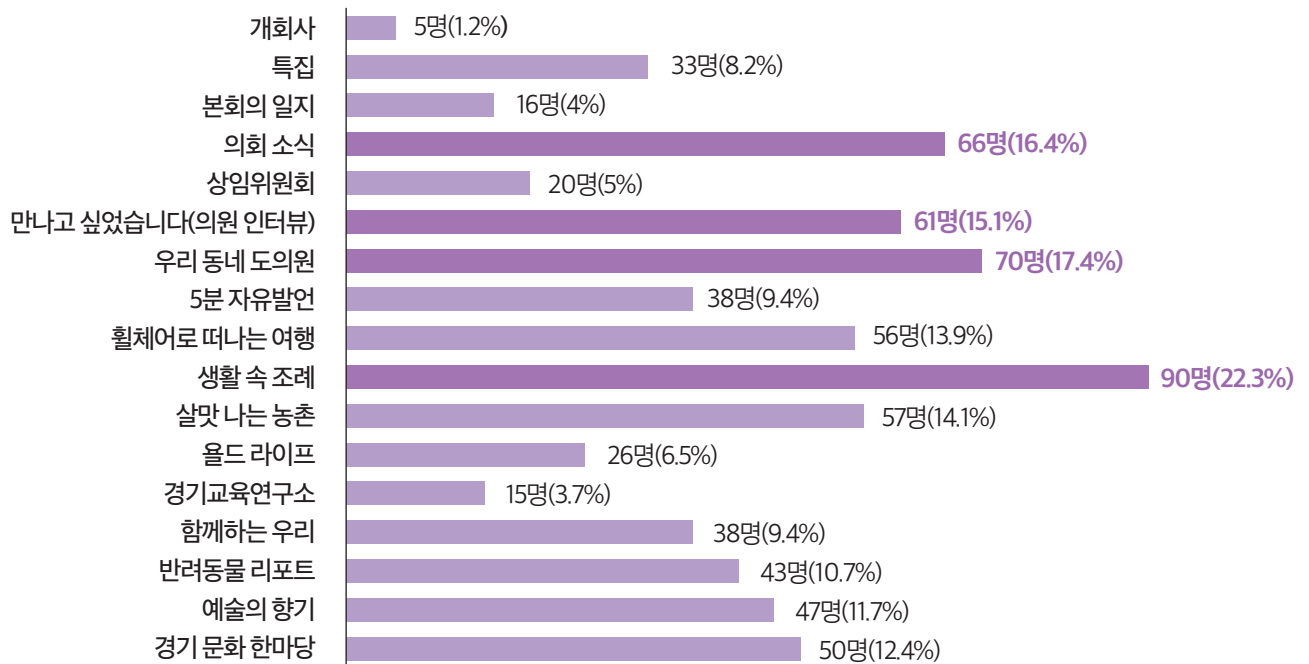
소식지가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응답 수=40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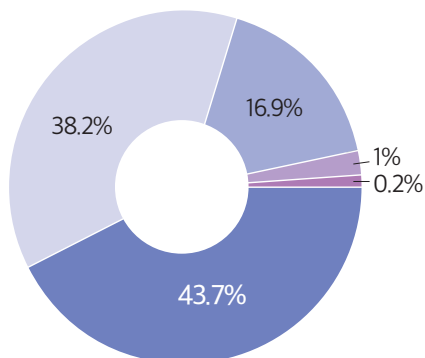
도민이 느낀 소식지의 가치 (응답 수=386건, 복수 응답)



가장 눈길을 끈 코너는? (응답 수=403건, 복수 응답)



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평가 (응답 수=402건)



만족 43.7%(175명)
매우 만족 38.2%(154명)
보통 16.9%(68명)
불만족 1%(4명)
매우 불만족 0.2%(1명)





2026년 이렇게 달라지길 바랍니다 (복수응답)

더 알차게, 더 쉽게 - 콘텐츠 강화 요구 59.4%(221명)

- 정책, 조례를 생활 언어로 쉽게 설명해 달라는 의견 다수
- 의정활동 '과정'보다 '결과' 중심의 보도 요청
- 지역 행사·경관, 관광·문화, 생활 상식 등 도민 실용 정보 확대 제안
- 경기도의 전통, 자연 소재를 활용해 의회 정체성이 드러나는 스토리 보강(상징, 기호, 정책 메시지 강화)
- 취업, 창업, 복지, 문화 등 세대별 맞춤형 실용 코너 신설 요구
- 인포그래픽, 차트를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개선 요청

함께 만드는 소식지 - 도민 참여 확대 15.9%(59명)

- 질문·제안, 사연·사진 등 시민 목소리를 접수해 다음 호에 반영하는 구조 마련
- 청년·시니어·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형 코너 개설 제안
- 도민 질문에 의회가 답하는 '문답형 코너' 신설 요구

더 읽기 편하게 - 편집, 구성 개선 3.8%(14명)

- 기사 분량이 많다는 의견과 함께 요약강화 요청
- 목차 가시성 개선, 섹션 구분 명확화, 챕터별 요약(하이라이트 박스) 도입 제안
- 관공서 홍보성 인상을 줄이기 위한 기사 톤 조정 요구

모두를 위한 소식지 - 가독성, 접근성 개선 2.1%(8명)

- 고령 독자를 고려한 글자 크기 확대 필요성 제기

더 단정하고 명확하게 - 디자인 개선 1.6%(6명)

- A4 규격 적용 등 판형 개선 요청(가로로 긴 판형에 대한 불편 제기)
- 고급 용지, 대형 책자 사용이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 의회의 상징과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길 희망
- 과도한 인물 중심 배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시
- 동일 페이지 내 동일 의원의 중복 노출 최소화 요청

그밖의 다양한 목소리 31.4%(117명)

- 감상형 의견, 정치적 발언, 철학적 제안 등 다양한 자유 의견 제시
- '추억과 힐링의 장소' 등 신규 코너 아이디어 제안

2026년 경기도의회 소식지 이렇게 바꿉니다

편집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표지 개편

도민 친화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도민 일상을 담은 따뜻한 분위기의 일러스트를 적용해 부드럽고 친근한 인상으로 첫 장을 엽니다.



내지 디자인 변화

수년간 유사한 형식을 유지해 온 상임위원회 코너 등에 변화를 주어 시각적 신선도를 높였습니다.

도민 친화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도민 공감 콘텐츠 대폭 확대

전체 지면 구성에서 도민 생활 밀착형 콘텐츠 비율을 50% 가까이 늘려 정책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추억, 생활 밀착 코너 신설

주 독자층인 50~70대를 고려해 '경기 지하철 나들이', '건강 100년 노트', '천천히, 디지털' 등 독자 친화형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의회 역할을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 확대

‘웹툰’ 의회툰, ‘의정 웹소설’ 코너를 신설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조례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합니다.

도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독자 참여 코너 강화

‘응답하라 경기’와 연계해 독자가 보내준 사연과 사진을 소개하는 ‘독자 속심 마당’을 고정 코너로 확대 운영합니다.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고령 독자 배려

글자 크기와 편집 구성을 개선하고, 고령 독자를 고려해 매호 확장판을 별도로 발행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독자 솜씨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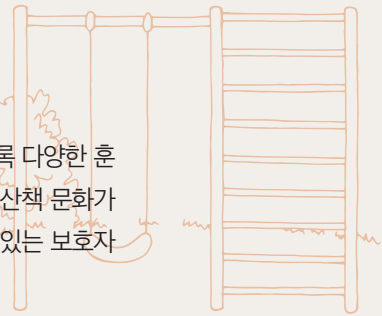
그동안 <경기도의회>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일상의 순간을 꾸준히 전해왔습니다. 풍경, 추억, 정책까지 한 편 한 편이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선보이는 ‘독자 솜씨 마당’은 이런 참여를 정기 코너로 이어갑니다. 이번 호에서는 첫 시작을 기념해 도민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합니다.



함께 걷기 위한 약속

반려견과 함께하는 외출이 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산책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보호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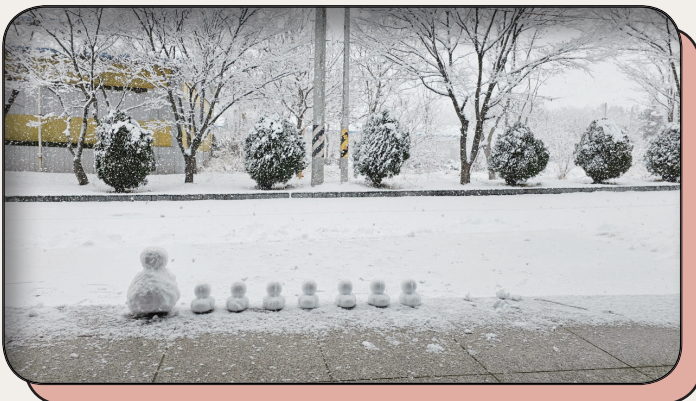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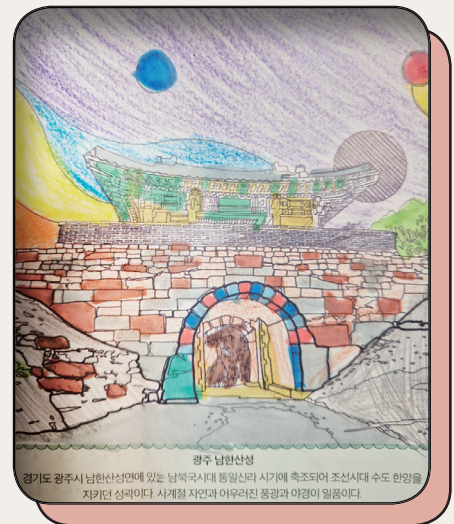
오규민 (5**9)



가족이 남기는 시간의 온기

아이와 함께 그린 그림과 가족의 추억이 겹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한산성의 가을 풍경과 가족 식사의 기억은 오래 남을 소중한 순간입니다. 일상이 곧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주재현 (0**4)



겨울이 불러낸 오래된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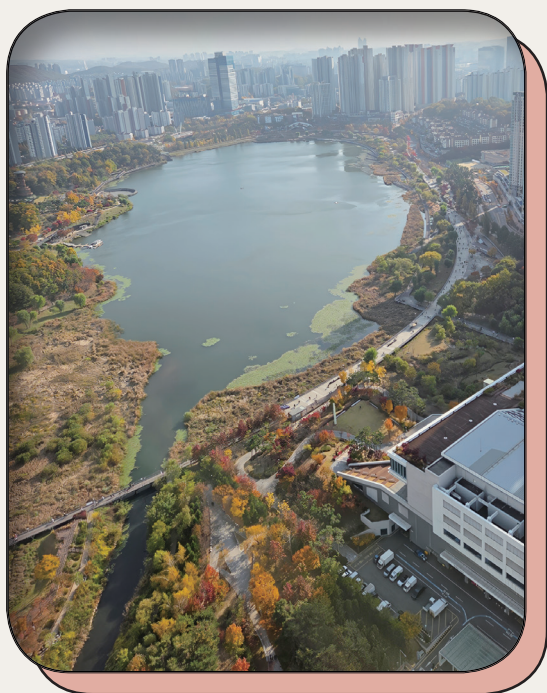
눈 오는 날 만든 작은 눈 오리들을 보며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눈 위에서 웃던 시간들이 지금도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겨울의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설아 (0**6)

새해에 마주한 마음의 거리

새해 아침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아직 닿지 못하는 땅을 보며 평화와 통일을 소망하게 됩니다. 새해의 다짐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원표 (7**5)



시선을 높이면 보이는 하루

화창한 일요일, 광고호수공원을 한 바퀴 산책한 뒤 카페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공간도 시선을 달리하면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일상의 여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란 (8**3)



차가운 계절의 조용한 위안

첫눈이 내린 날 안양천에서 만난 왜가리 떼는 겨울 풍경 속 작은 위로였습니다. 추운 계절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자연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환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초원 (6**5)

함께 지켜가는 순환의 길

자원순환 실천사업 소식을 접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주민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지속적인 확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김동석 (6**5)

지역을 이해하는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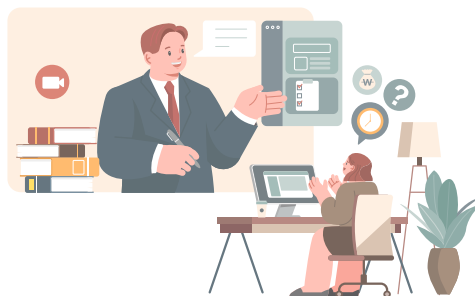
의회 소식을 통해 지역 현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생활과 연결된 정책 이야기가 특히 가슴에 남습니다. 도민을 위한 정보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용근 (5**4)

마음을 잇는 이야기들

상담 사례를 읽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조석현 (6**9)



독자 이벤트

골목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추억 속 단골 가게를 사진으로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래 간직해 온 골목 사진, 가족 앨범 속 시장 풍경, 친구들과 찍은 문방구 앞 사진처럼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최근에 다시 찾아 찍은 사진도 좋습니다. 사진과 함께 가게 이름이나 짧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선정된 작품은 다음 호 '독자 솜씨 마당'에 소개됩니다. 한 장의 사진이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불러옵니다. 당신의 기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접수 마감: 4월 10일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발송 및 경품 지급 행정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도민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경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는 제294호 소식지 기획·편집회의를 통해 2026년도 소식지의 새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위원회 위원들이 전하는 편집회의 소감입니다.



의정홍보위원회 회의(2026.2.5.)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

2026년 제294호 소식지는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독자 모니터링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구성을 보완하고 변화하려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옥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소식지는 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창구이면서 동시에 도민과 의회를 이어주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의정 웹소설 등 정책과 제도가 실제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담아낸 점이 좋았습니다.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가)

현장에서 도민을 만나 보면 생활과 밀접한 정보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이번 소식지는 문화와 생활, 지역 이야기 등을 함께 담아 다양한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도민이 부담 없이 펼쳐볼 수 있는 소식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경기도의회의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좋았습니다. 단순한 결과 소개를 넘어 의정 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이 의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국민의힘, 가평)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산간 지역이 함께 있는 만큼 도민의 생활 모습도 다양합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각기 다른 삶의 현장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도 지역 곳곳의 이야기가 폭넓게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선조의 하루, 나의 하루처럼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낸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정책이나 제도를 설명할 때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접근하면 독자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재교 위원(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언론의 시각에서 볼 때 공공기관 소식지는 신뢰성과 전달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는 의정활동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맥락과 의미를 함께 전달하려는 편집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사 구조를 정리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황광원 위원(케이미디어 대표이사)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 매체도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번 소식지는 도민의 일상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표지를 통해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취업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야!

2026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 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직영과정) 무료 교육생 모집

주요 내용 건설 분야 취·창업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모집 내용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
신청 기간	과정별 다름
신청 인원	과정(직종별) 15~20명 내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특화사업팀 (담당자: 031-270-6637)
상세 요건	

1. 교육 내용

교육기관	과정 및 직종	모집 기간	교육 기간
경기도 일자리재단 [직영과정]	시스템 냉난방기 전문가 양성 과정(1기)	2. 23.~ 3. 18.	3. 24.~ 5. 11.
	주방 가구 시공 전문가 양성 과정(1기)	3. 9.~ 4. 3.	4. 14.~ 5. 18.
	건설보수 다기능공 양성 과정(1기)	5. 18.~ 6. 12.	6. 24.~ 7. 29.

2. 교육 장소: 경기도기술학교(경기도 화성시 기산로 31-6) 및
외부 교육장

3. 교육 혜택: 훈련지원금 지급, 교육비·교재비 전액 무료 지원

2026년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 기업 모집

주요 내용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 인턴 채용 기업에 최대 400만 원,
인턴에게 60만 원 지급

모집 내용	
대상 기업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타 기관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
인턴 대상	경기광역·IT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신청 기간	상시 모집
신청 방법	전화 신청(031-270-9808)
문의	경기광역새일센터(031-270-9808) / ahk@gjf.or.kr 경기IT새일센터(031-270-9879) / fran02@gjf.or.kr
상세 요건	

- 4대 보험 가입 필수, 2026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준수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새일센터 상담 필요
- 워크넷 구인 등록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인 정보 제공
동의 체크 필수
- ※ 참여 제한: 특정 기간(감원 방지 기간) 내 인위적 감원 사업장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취업 지원'

주요 내용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job.gg.go.kr

주요 내용	
취업 진단	직업 선호도, 취준 BTI, 취업 준비도, 취업 가능성, NCS 직업 역량 진단까지
자소서 첨삭	전문 컨설턴트들의 차별화된 첨삭 지도, 심층 컨설팅
AI 역량 검사	잡아바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
동영상 강의	원활한 실무 적용이 가능한 교육을 통해 지식 및 기술 역량 학습



공무원사칭 피해주의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납품 요청 등의
연락을 받은 경우



최근 경기도의회와 시군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된 서류와 명함을 제시하면서
특정 물품 구매를 빌미로 입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칭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기도의회 및 해당 시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부서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사기로 확인되면 즉시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 바랍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다"

소방서 한쪽 벽에 적힌 이 문장은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의 마음을 보여 줍니다.



2022년 1월,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무를 다하던 세 분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중을 전합니다.